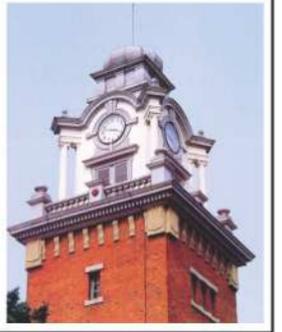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2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9권 4호

PO Box 901, McLean, VA 22101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許善行

snuclma@yahoo.com

www.snuclmaaus.org

SNUCMAA

38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30(Thur) ~ April 2 (Sun), 2023

Sheraton Cerritos Hotel

12725 Center Court Drive, S. Cerritos, CA 90703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제 38차 학술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젊은 동문들의 Scientific Program을 다양하고도 충실하게 준비하여, 한국 임원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알찬 CME Progra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나고도 유익한 Non CME Program 역시 흥미있고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별이 쏟아지는 캘리포니아 푸른 초원에서의 골프와, 학회장에서 멀지 않은 디즈니 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유와 낭만은, 최고의 의과 대학 서울 의대를 졸업했기에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요. 부디, 모두 참석하시어 의미있는 컨벤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기들의 모임 역시 이번 학술대회를 기회로 '의미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북미주 동창회
회장: 전 경 배(75)
Convention Chair : 김 성 환(71)

영문으로 쓴 이 Michelle Kwon 장학생 편지는 우리 동창회에서 해마다 수여하는 장학생들 편지 중의 하나이다.

해마다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는 본교 학생 5명, 교포 학생 5명에게 엄중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 과정은 해마다 장학기금을 보내주신 많은 동문들 또 근래에는 작고하신 동문들의 유가족여러분의 뜻에 비롯되고 있음을 감사한다.

또한 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명희 동문님과 장학생 선택 과정에서 수고하는 강민중 장학위원장, 이선희 님, 서인석 님을 비롯하여 김 사무장과 신, 구 장학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글; 편집인 서윤석

October 13,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SNUCMAA-NA)

Dear SNUCMAA-NA,

I am sincerely honored to have been writing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ose who endowed the SNUCMAA-NA Dr. Sang Seol Rhee and Mrs. Rhee Scholarship. I want to personally thank you for helping me pursue my dream of becoming a physician and supporting my education at the CUNY School of Medicine / Sophie Davis Biomedical Education Program. I was thrilled about this honor, and I am deeply appreciative that I am a recipient of your scholarship.

I am a second-year student at the Sophie Davis B.S./M.D. program, which is

an accelerated seven-year medical school program. Upon graduating, I hope to become an otolaryngologist. I am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present at the CUNY School of Medicine (CSOM) and am part of the MacLeish Fellowship, which allows selected undergraduates to conduct research under a faculty member at CSOM and CUNY facilities. I am currently working at the Emerson Lab and learning exponentially. I study on understanding the molecular and cellular mechanisms that underlie the development of the vertebrate retina and am working on a research poster.

In addition, attending school in Harlem, I have noticed how food deserts take a toll in residents and college students. The inaccessibility of healthy and affordable food sparked me to be heavily involved in CityGreens, an organization that I founded that donates free plants to encourage gardening and promote healthy eating lifesty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 will continue working on expanding CityGreens and remain dedicated of making a similar and larger impact as a student at Sophie Davis and as a physician.

I am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of my education and for this amazing scholarship. Traveling from Queens to Manhattan every weekday, I have a 3.5-hour roundtrip commute. This scholarship will be tremendous help to my financial situation, allowing me to work less and wholeheartedly focus on academics and my extracurriculars. It will also help me start saving up to afford a place closer to school.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us and thoughtful gift.

Sincerely,
Michelle Kwon

제1차 이사회 초록

2022년 8월 27일(토)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참가자:

이만택(58) 이명희(66) 서윤석(68) 김성환(71) 김일영(71) 서인석(73) 김원정(75) 전경배(75) 한승신(76) 최광휘(76) 김동훈(77) 남명호(81) 서귀숙(84) 김자성(85) 강민중(91) 박종철(99) 임경빈(99) 박은경(00) 김영애(여사)

proxy:

한기현(63) 김태웅(64) 허선행(64) 최준희(64) 최영자(66) 주광국(68) 이원택(71) 강창홍(71) 한민우(75) 이선희(81) 차민영(82) 송경민(09)



1. 2022년 6월 27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에 Zoom meeting으로 1차 이사회를 김성환(71)사회로 진행으로 시작하였다.

2. Agenda로 새로운 Research and Fellowship chair 추천 건과 Green Project committee advisor 임명 건과 Fund Raising committee chair의 새로운 역할이 발표되었다.

3. 지난 회의 초록(2022년 6월 23일 제 2차 대의원회)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1차 이사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4. Treasurer(85, 김자성) 재무 서면 보고: 2022년 8월 27일 현재의 은행 잔고 액수와 2022년 7월 1일에서 8월 27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하였다.

5. Finance committee(71, 김성환): donation이 근래에 많이 들어오는 것에 감사 한다는 인사가 있었고, 지난 회기의 세금보고는 회계사에게 현재 보내져서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있었다.

6. Scholarship committee report(91, 강민중): 현재 Scholarship committee 3중점 activities에 대한 소개를 PPT로 하면서

- (1) 미주교포자녀 장학금 선발과 본교 학생에 그린프로젝트 장학금 지원
- (2) 본교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필요사안 파악
- (3) 미주서울의대 젊은 층 내에서의 대화 촉진 등 위의 세 사안에 대한 활동 보고가 있었다.

미주교포자녀에 대한 장학서류 마감은 9월 11일로 10월 11일까지 서류검토로 장학금 선발을 하여 다음 대의원회에서 승인 받을 계획이고 미주교포 장학금은 Fund management에서 매년 나오는 SNUCMAA장학금 1만불, 김태웅(63) 장학금 1만불 그리고 고 이상철(58) 부인 김정화 여사님께서 지원하신 5천불, 고 정일환(63) 동문의 부인이신 최문숙 여사께서 지원하신 5천불이 올해 지급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하였다.

미주서울의대 젊은 층의 동창회 참여와 본교학생들과 미주 동창회의 연결활동에 대한 일원으로 여름 연수 본교생들(맥심 동아리 회장 등)과 Green Project 멤버들의 각 지역별 만남이 있었고, 본교생들과 zoom meeting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Scholarship과 Green Project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원금 모금에 많은 선배 동문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가 있었다.

고 김국민(60) 동문의 부인이신 김공자 여사께서 본인 생전에 1년에 1만불씩 지원하시겠다고 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상일(60) 동문께서도 1만불 지원이 있었으며 추가 문의 전화가 동창회로 오고 있다. 이를 위한 소모임을 Extended Green Project zoom meeting으로 하여 8월에 한승신(76) 김정아(76) 서귀숙(84) 강민중(91) 임경빈(99) 백시환(99) 박은경(00) 동문들이 앞으로 갈 방향에 세부사항 논의를 가졌다고 보고 하였다.

위의 발표에 대한 질문사항에 있어서 현재 인플레에 비하여 미주교포 자녀에게 1인당 주어지는 장학금 액수가 적다는 의견에 장학위원회 내에서 검토하여 다음 대의원회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의논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으

로 교포자녀에게 장학금을 늘리는 대신 동문 젊은 층의 미주 정착자금 지원(PhD 추구하는 동문을 위한)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미주동창회 취지와 선립 의지에 합당한 방향으로 경제적 무리가 안 되는 수준에서 고려하여 상의 후 다음 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 의논하기로 하였다

7. Fund Raising committee report(76, 최광휘): 현 회장과의 상의 하에 새로운 과제로 각 동기 대표와 이사진과의 주기적 연락을 통하여 각 동기의 활동과 근황을 동창회로 알리는 교량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하였다.

8.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Fund Manager, John Baek) 서면 보고: 1998년에 투자 금액과 그 동안 지급이 된 액수, 현재 원금의 상황 보고가 있었다. 원금을 잃지 않고 장학금 2만불 매년 지급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4.3%로 올해 말까지는 6%내지 7% 가능할 듯 하다고 보고.

2만불씩 지속적 장학금 인출로 가면 27년 이후에도 원금이 유지가 되지만 먼저 제외된 1만불씩 추가로 장학금을 더 인출을 한다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3만불 인출로 간다면 27년 이후 원금 유지는 포기하여야 한다.)

9.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report(75, 김원정): 능력있는 후배인 2006 졸업 박혜성을 chair로 추천한다고 하였고, 박혜성 동문의 약력 설명보고가 있던 후 (research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동문)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음 1차 대의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10. Green Project committee report(99, 임경빈): 지난 달 2번의 회의를 가졌고 Extended Green meeting에서 본교생의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elective rotation인데 미국동문의 조언을 구한다고 하여 panel을 모시고 zoom에서 질의문답 형식 meeting을 가졌음을 보고.

이번 학술대회 Scientific program에 대한 feed back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았으나 현직에 있는 Green member의 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11.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지난 7월호 시계탑 발송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었다는 보고와 편집장 역할 후 편집위원, 이사로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시던 이희경(61) 동문의 작고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그 시각에 memorial service 가 Roslyn Heights funeral home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12. Scientific committee report(99, 박종철): 37차 학술대회에 코비드 동안에 못 열렸던 기간이 있었는데 참여와 반응이 매우 긍정적 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다음 학회에는 신장과 심장에 관하여, pain management topic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geriatric subject에 대한 반응이 좋은 듯 하다.

동문 이외의 초청연사 제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이 가능하면 미주동문 내에서 주된 연사를 결정하되 예년에도 몇 명(3명) 정도의 외부 초청연사는 있어왔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국 본교와 본원에서의 참여자를 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은 미주동창회 회장이 한국의 임원들과 미리 학술대회 일정을 알리어 Scientific program speaker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진하자고 의논이 되었다.

University of Buffalo에서 evaluation을 survey monkey 등을 활용하려 하지만 이는 참여자가 session을 마치고 참여하는 동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의 참여자 연령을 고려한다면 paper survey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3. Convention committee(71 김성환): 38차 학술대회 시기는 2023년 3월 30일에서 4월 2일로 일정은 정해졌으나 LAX와 Disney land 중간 정도의 알맞은 호텔을 아직 찾는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젊은 동문의 참여 commitment를 높이기 위한 위치 결정이었다.

14.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의 서면 보고: Charity committee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장애 아동지원센터)이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운영이 이어지지 않아 지원되는 \$2,000을 이번에도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다.

15. 전경배 회장 보고: 7월 1일부터 열심히 해 보려 하는 데 동부는 한민우(75) 관리로, 서부는 차민영(82) 부회장이 하시는 구도로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조지아주 Atlanta에 By Law committee가 허락을 한다면 새 chapter를 세우는 것을 다음 회의에서 의논하기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원래 있던 챕터도 활동이 없는 곳은 없애고 새로운 곳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restructuring 진행을 다음 회의에서 하자고 했음. 동창회 migration 등 파악을 하여 이 일을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었다.

지난 37차 학술대회 동안에 지난 회기 안우성 회장의 제의로 시작이 된 동창회 사무장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제안에 대한 검토를 Ad-hoc committee를 만들어 좋은 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전경배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미주동창회와 모교 재학생이 만나는 여름 워크샵



7월 19일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는 모교 재학생과 만나는 여름 워크샵을 화상 회의로 진행하였다. 강민중 동문(89, 장학위원장)이 주선하고 임경빈 동문(99, Green Project 위원장)과 박은경 동문(00, 시계탑 편집위원)이 기획 및 공동 진행을 맡은 이 회의에서는 신택수(94), 황필규(00), 장세권(01), 이익재(08), 김지혜(18), 신상하(18) 동문 등 여섯 명의 동창 회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모교 후배 학생들은 총 24명이 참여하였고, 모교 학생들 외에 미국 여러 병원에 실

습을 나와 있는 일곱 명도 함께하였다. 기획팀은 미리 학생들의 질문을 취합하고 사전 토의를 하는 등 정성 들여 만남을 준비하였고, 패널들은 평일 늦은 시간임에도 2시간여에 걸쳐 진솔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논의한 주제는 적절한 미국 진출 시기, 레지던시 준비 시 고려할 점, 미국 의사 생활의 실제, 수련, 연구 및 생활 면에서 미국 내 지역별 차이점, 박사 과정이나 제약회사와 같은 비임상 진로 선택 등이었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경험이 농축된 대화를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실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미국 진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임하는 학생대표(23 졸업 예정, 맥심 동아리 회장)를 통해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 막연히 관심만 갖고 있던 학생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고민을 안겨준 고무적인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되어 후배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미주동창회 선배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준비와 패널을 맡았던 동문들도 모두 보람되고 흐뭇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례 정기 워크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는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기사: 박은경 편집위원)



뉴욕에 여름 연수 온 본교생과의 만남이 7월 16일 맨해튼에서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조수정(03), 김동현(본과 4), 임하은(본과 4), 강민중(91), 박종한(08)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김윤태(56) 동문 별세: 버지니아의 Norfolk에서 타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외과를 개업하시다가 도미하여 Lima, Toledo Ohio, Saginaw Michigan에서 개업하시다가 은퇴하였으며 평소와 낚시와 골프를 즐기셨으며 지난 10년간은 chronic lung condition은 있었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지난 9월 17일 자택에서 향년 93세로 갑자기 타계하신 것입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셨고 부인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으로 가족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조창남(60) 동문 별세: 메릴랜드에서 거주하시던 조 동문께서 지난 8월 10일 별세 하셨습니다.

이희경(61) 동문 별세: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를 위하여 총무, 회장, 이사, 시계탑 편집장으로, 최근까지 편집위원으로 봉사하시던 이 동문께서 지난 8월 13일 별세 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세 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임병훈 동문 별세: 정신과 전공의로 미쉬간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6월 1일 별세 하셨습니다.

이희경 동기를 보내며



7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3월 15일에 맨해튼에 있는 스페니시 레스토랑에 희경의 생일 자축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당시 뉴욕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7-8 동기동창 부부들이 모였었는데 라이브 뮤직에 댄싱이 곁들인 디너 댄스파티였다. 당시엔 대단한 호강이었다. 미국에 와서 병원 주최의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참석한 일이 있으나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다. 희경은 이 파티를 위해 private lesson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하삼배는 육군에 복무할 때에 카바레에 드나들었다고 하니 춤 실력이 보통 이상이었고, 나와 이준우는 의대 재학 시에 쌓은 실력이 있었다.

이 일이 있던 뒤 우리 친구들은 롱아일랜드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종종 댄스파티를 가졌다. 당시 친구들은 training을 끝내고 새로 집을 장만하여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때였다.

이 생일 파티에 초대받기 전까지는 희경과는 서먹한 사이였다. 대학생할 6년 동안 그와 접촉한 기억이 별로 없다. 처음으로 그를 기억하게 된 것은 1966년 대구에 있는 육군 군의학교에서 훈련받을 때였다. 소위 Kim's Plan에 의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한두 달 쯤 지났을 때에 희경이 육군 대위의 계급장을 달고 한창 고생하고 있는 10여 명의 우리 동기생을 위로차(?) 방문했다. 그때 우리들 중 누구를 지목하고 왔지도 분명치 않다. 의대 졸업 후 입대하여 5년을 복무하고 제대를 앞둔 희경은 대구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뵙고, 우리를 찾은 것이다. 그 마음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롱아일랜드의 몇몇 친구들 집을 돌면서 새로운 취미 그룹이 생겼고,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비슷하여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렸다. 당시 뉴욕 지역의 우리 동기생들(하삼배, 이준우, 이희경, 조홍, 이재두, 이한수, 손주현, 장태환, 오정환, 민현, 양명교)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었고, 이종현이 코네티컷에, 김성준, 권순홍은 웨체스터 카운티, 나만 뉴저지에 살고 있었다. 70년대 중반인가에 테니스, 80년대엔 골프 그리고 스키 등으로 동기생 가족이 풀려다녔던 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

70년대 초에 태동하기 시작한 서울의대 동창회에 희경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대 한용현 회장을 도와서 동창회 총무에 취임하여 이준우 재무와 함께 6-7년 동안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동창회의 오늘이 있게 한 공로자이다.

그는 또 동창회의 회보인 시계탑 출발부터 간여하여 편집장, 편집위원 및 자문 위원으로도 활약했고, 글솜씨도 뛰어나 몇 편의 주옥같은 글을 시계탑에 올린 바 있다.



미술에도 취미가 있어 남 몰래 그림을 그려왔고, 그의 작품들은 장례식에서 전시되었다. 그중 2편을 유가족이 보내왔다.

희경은 1936년 3월 15일 경상북도 군위에서 출생하여, 195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였다. 5년의 육군 복무 후 66년 도미, 67년에 코네티컷 Waterbury의 St. Mary's 병원에서 인턴십, 69년에 프로비던스의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시, 72년 Yale 대학병원 Nuclear Medicine 펠로우십을 수료하였다. 그는 뉴욕의 엘머스트 병원의 Nuclear Medicine 과장으로 부임하였고, 81년엔 Mt. Sinai Medical School의 부교수에 임명되었다.

희경은 91년에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초빙되어 2001년까지 핵의학과 교수 겸 핵의학과 과장으로 한국의 현대의학 발전에도 한몫을 담당하였다.

1962년 효성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이애순 양과 결혼하여 세 아들, James, Michael 그리고 David을 두었다. 남들보다 늦게 결혼한 큰아들 James에게서 얻은 귀한 손녀(11세)는 은퇴 생활 중에 큰 활력소가 되었고, 손자(9세)도 곧 태어나 한시름 덜었으리라.

10여 년 전에 가톨릭에 귀의하여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가졌다. 지난 10여 년간, 한참 만남이 뜸했던 시절엔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지 않았나 싶다.

그가 졸업 20주년 기념사진첩에서 취미라고 밝힌 것을 소개한다. (1) 골프, 정구, 스키 (2) 문학, 술, 여인 (3) 미술감상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다 쳐도 여인을 취미로 삼고 이 취미를 얼마나, 어떻게 즐겼는지 자못 궁금하지만, 이제는 알 길이 없다. 그의 생애를 더듬어보니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희경이, 편히 쉬시오. - 김영철(61, 대뉴욕)

가을을 위한 금관4중주



서 량(69, 대뉴욕)



1악장 - 따스한 가을

바람 부는 오후에 간들간들 떨어지는 잎새에서 비릿한 향내 피어난다. 이거는 중세기 시절 몸집 하나 우람한 흑기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던 송충이 속눈썹에 코가 알맞게 큰 귀부인의 아득한 몸 냄새라고 우기면 고만이다 나는

바스락거리는 거 말고 아무런 탄짓을 못하는 저 갈색 잎새들은 지들 몸에서 무슨 향내가 나건 말건 도무지 알지 못하지 하늘 청명한 시각에 어둠이 한정없이 깔린 땅으로 나 몰라라 하며 아래로 아래로만 떨어지면 고만이다 곧장



2악장 - 가을 냄새

가을은 갓 끓인 누룽지다 침대에 널브러진 이부자리다 비 내리는 밤에 당신 심층심리 일렁이는 바다 속 깊이 몰래 춤추는 미역줄기 몸놀림이다 하왕십리 행당동 지나 천호동 뚝섬 가는 길썩을 기어가던 커다란 도마뱀의 신중한 동작이다 가을은 내 몸 냄새다 씹지 않아도 저절로 씹어지는 군용건빵의 텁텁함이다 새벽 4시에 창문을 연다 알가 알부 할 것 없이 가을비가 왕창 쏟아진다 얼마 후 빗기운이 부드러워진다



3악장 - 가을 음악

할로윈데이 당신 의향과 관계없이 음산한 음악 소리 들린다 좀 있다가 찌렁찌렁 울리는 트럼펫 듀엣 멜로디 싱그러운 밤의 숲속, 숲이 일그러지는 순간 오랜만이야 하며 서로를 얼싸안으면 급히 터지는 재즈식 화음 격한 불협화음 혹은

당신과 내가 한통속이라는 느낌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힘 주며 프렌치 호른이 감싸주는 화음 처리 아주 높은 음역에서 내는 공명음이라면 한참 더 좋지 눈을 꼭 감고 묵상하는 위안 그런 든든한 위안이라면 가끔씩 또는



4악장 - 화려한 가을

바람결 물결치는 호숫가 머리칼 풀어헤친 갈대들이 서걱거린다 셋노란 금발 또는 갈색 머리 내 어릴 적 앞마당 장독대보다 높은 음정 하왕십리 지나 행당동 무학여자고등학교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 다음 소절을 예고하는 트롬본 주법으로 낮게 터지는 당신의 탄성 지구의 예리한 음감, 바람이 몸을 푼다 천천히 잠시라도 좋아 잠시라도 좋다며 우주 속 깊이 자리잡은 무한한 가을을 나는 즐기차게 탐미한다



최예원(12) 동문

(임상약리학 전공, Merck 제약회사)



캐나다 몬트리올의 놀이공원 관람차에서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보스턴에 있는 한국계 신약 개발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서 2019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의대 다닐 때 고등학교 동문 친구들, 선배들이 해외로 대학원 유학을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외국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공의 4년차 때 박사 논문도 동시에 마무리하면서 국내외 학계(academia)와 산업계(industry) 어디로 진로를 정할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해외 산업계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당시 제가 수석 전공의(Chief Resident)로서 교실내 세미나들을 준비했었는데, 세미나 강연자로 오신 신약 개발 1세대 연구자 고종성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 박사님은 보스턴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 Genosco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신데, 마침 신약 개발을 함께 할 의과학자(physician scientist)를 찾고 계셨어요. 신약이 블록버스터가 되는 등 과학과 산업이 만나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보스턴이라는 새로운 환경도 마음에 들어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 임상약리학은 어떤 분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과 4학년 1학기 때 2주 정도 강의 들었던 임상약리학 수업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여름방학 때 학생 인턴십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바로 임상약리를 전공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요. 전통적인 임상과나 기초과와 다르게 임상약리학은 한국에 소개되고 병원 및 대학에 과 혹은 교실이 생긴 지가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국 모든 병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만큼 역사가 짧다고 할까요.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학문 분야가 연구와 임상 둘 다에 걸쳐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임상약리학과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병원 차원에서는 주로 적정약물요법(pharmacotherapeutics)이나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자문(consultation)을 합니다. 임상시험센터(clinical trial center)와 연계하여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을 설계하고, 수행, 데이터 분석 및 보고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합니다. 그 외에 임상 약동/약력학(pharmacokinetics/pharmacodynamics),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약물 상호작용(drug interaction) 등 여러 가지 임상

연구 뿐만 아니라 신장이나 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 고령 환자들이나 소아 환자와 같은 특수 집단에서의 약물 요법,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등을 연구합니다.

3. 최근에 옮긴 새로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첫 직장이었던 Genosco에서 3년 남짓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올해 5월 말부터 다국적 제약회사인 Merck의 초기 항암제 개발(oncology early development) 부서로 옮겨 임상 책임자(Clinical Directo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전 직장과 비슷하지만, 회사 규모가 달라서 업무의 흐름이 현격히 다릅니다. 전 회사는 전체 직원이 30여명인 전형적인 벤처기업이었다면, Merck은 전세계에 7만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의사가 저희 팀에만 15명 정도 됩니다. 규모가 크기에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회사 내에 포진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약물의 종류가 많고 초기 임상 뿐만 아니라 후기 임상 개발, 약물 허가 이후의 개발까지 모두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초기 항암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트너링이나 인수합병 등 사업적인 부분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4. Boston에서의 일상은 어떤가요?

저는 보스턴 지역을 가로지르는 찰스강 가까이 사는데요, 작년부터는 강에서 세일링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돛이 하나나 두개 달린 20 feet 정도 되는 배를 풍력만을 이용해서 몰아가는데요, 물 위에서 바람이 밀어주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세일링을 할 수 없는 겨울시즌에는 강변을 달리거나,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뉴햄프셔의 White Mountains에 종종 하이킹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발레, 재즈댄스, 현대무용, 탭댄스, 살사, 댄스 스포츠 등 각종 춤을 많이 배웠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탱고는 파트너가 서로의 호흡을 섬세하게 맞추며 만들어가는 춤선이 우아하고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음악만으로도 작품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음악만 들어도 좋습니다.

5. 취미가 근사합니다.

탱고 곡 추천해주세요.

너무 좋지요.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탱고의 역사(Histoire du Tango)'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오리지널 버전인 플루트와 클래식 기타의 듀엣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또, 롤랑 디앙(Roland Dyens)이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Tango en Skai' (가짜 탱고 혹은 흥내낸 탱고. Skai는 인조 가죽을 뜻하는 프랑스 속어로 여기서는 가죽 의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남부의 가우초(카우보이) 들을 지칭함)라는 곡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곡은 예과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 '아르페지오' 연주회에서 제가 솔로로 연주했었는데, 연주 테크닉이 재미있어 인기가 많았고, 남미의 열정을 품은 곡의 분위기가 저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6. 미국 생활은 어떤가요?

미국에 온지 3년 반 정도 되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저는 더 좋네요. 개인간의 거리가 조금 더 넓게 지켜지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만나면 흔하게

듣는 첫 마디가 바로 "너 살쪘다"잖아요.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상대방의 외모를 직설적으로 평가하거나 사생활을 참견하는 일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외국 생활이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늘 응원해주시고 자립심이 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덕에 잘 해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해외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친한 친구들과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네요.

7.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클래식 기타 동아리 '아르페지오'에서 활동했던 시간이 학창 시절 추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과 때에는 솔로로, 본과 때에는 지휘자로 활동을 했어요. '아르페지오'는 "기타보다 사람이 좋은 동아리"가 표어였고, 기타 연습 후 뒷풀이 자리에서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율권이 있는 몇 안 되는 동아리 중 하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대신 당시 유행하던 '아이스 베리'라는 빙수 전문점에 가서 한 테이블 당 세숫대야 만한 거대한 빙수를 하나씩 시켜놓고 수다를 떨면서, 게임에서 지는 사람에게는 재미로 남은 빙수 '국자샷'을 시키곤 했습니다. 여름 캠프도 빼놓을 수 없지요. 가을마다 하는 정기 공연을 위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공연 준비에 돌입했었는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펜션에 모여 뮤직 캠프라고 부르는 3박4일의 합숙을 했어요.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연달아 기타 연습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라면도 끓여먹고 고기도 굽곤 했지요. 한편, 기타곡 작곡가들 중에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출신이 많은데, 그 때부터 남미 여행의 꿈을 키워서 인턴 마치고는 장장 6개월동안 남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8. 올해 동창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소감이 있다면요.

보스턴통이신 고 박사님을 통해서 세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고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에 앞서 '시계탑'을 받아보았는데, 신문 제목부터 한자로 되어있고 시조가 실려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세대가 크겠다는 느낌이 압도했지만 어떤 분위기의 모임일지 궁금해서 참석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동창회가 열려서 CME 세션에 앉아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일반 학회처럼 활발하게 질문하시고 토의하시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어린 저같은 후배에게 다가가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도 신선했구요. 선배님들과 제 나이의 차이만큼 저보다 어린 후배를 상상해보니, 저보다 30~40년 어리려면 지금 아가이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셈이거든요! 저녁 식사 때 트로트를 즐기시는 선배님들의 문화가 다소 생소했지만, 결국엔 다 같이

스스럼없이 어우러져 함께 웃고 춤을 출 수 있어 기쁩니다. 처음 참석했는데도 편안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니, 동문이라는 끈끈함이 이런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 또래 동문들은 일이나 육아로 바쁘거나 잘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동창회에서 얼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9. 미국 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제가 미국에 있었던 기간 중 절반 이상이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짧은 여행이나 근교로의 자동차 여행은 종종 다녀갔는데, 2년 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시작해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를 거쳐 조지아 애틀랜타까지 돌아봤던 남부 로드 트립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보스턴이나 뉴욕 등 대도시만 경험해왔던 때였는데, 남부 깊숙이 크고 작은 도시들을 운전해서 여행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고, 노예제도와 남북전쟁 등 미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uerto Rico의 석양을 배경으로

10. 미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아직 미국에 온지 오래 되지 않아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 더 풍부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임상의사 이외의 다른 진로를 고려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좀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경험이 없으면 이들이 원하는 추천서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의 눈도 높아지고, 진입 장벽도 높지 않을까요? 미국에 첫 발을 들여놓기가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찾아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와서 적응하고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계탑 10월호 편집회 초록

장소; Zoom으로 시간: 2022년 10월 8일

서귀숙, 박은경 두 위원은 여행 중이라 참석을 못했다. 이번에 처음 편집장이 Host하는 모임이었다. 바쁜 일정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허선행, 서량, 서윤석 그리고 황창근 사장이 참여했다.



고 이희경 편집위원을 기리는 추모사를 김영철(61) 동기가 보내와서 10월호에 올린다. 고인은 핵의학을 전공하면서 서울 삼성병원과 뉴욕의 Mount Sinai 대학 병원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교수로 활약했다. 또한 서울에서 61년 동기들의 문집발행을 주관했고 미주 제3대 시계탑 편집장(1980-1982)과 편집자문으로, 미주 동창회 이사로서 평생 봉사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에 들어온 원고는 코로나 사태가 풀려서 여행기가 많이 들어왔고 그중에는 후세들을 위한 영문 원고도 들어왔다. 시계탑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는 끝에 이번에는 신기로 합의했다. 또한 원고 중에 다른 곳에 실었던 수필이 발견되었지만 12년 전이라 묵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타지에 이미 발표된 글은 사양하기로 했다.

가을을 만끽하는 명상으로 독자를 이끄는 서량 시인 작품, 변화의 조짐이 들어나는 김병오 시인의 작품을 올린다. 박은경 위원은 젊은 세대 대담시리즈를, 또 서울 모교 학생들을 포함한 GP들의 줌 미팅 사진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내왔다.

38차 미주학술대회가 내년 3월말에 LA에서 있기때문에 이번호부터 광고를 내야 된다. 37차를 무사히 마친 경험을 토대로 정성을 다하여 전경배 회장단이 추진하고 있다. 회의 후 들어온 김의신(66) 졸업 56년 여행기와 조은순(61) 동문의 영문원고도 이번호에 첨가될 것이다. 다음 편집회는 2023년 1월 14일로 예정하며 이번 회의를 끝냈다. 글; 편집장 서윤석



1966년에 졸업한 우리 동기 108명 중 30명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 입학 당시 수석으로 들어온 동기가 순수하고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일찍 저세상으로 떠나간 것을 계기로 비교적 많은 동기들과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은 기구한 운명이다 하겠다. 55주년 기념 여행을 여러 차례 설문을 통해서 긴 여행이 아닌 일주일 또 걸지 않고 가방을 들고 옮겨 다니지 않는 크루즈 여행을 택해 뉴욕에서 떠나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배 안에서 옛이야기를 끝없이 하자고 결정해서 처음에는 미국 동기 15명과 한국 동기 10명이 호응을 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계획이 연기되고 한국의 많은 동기들이 어지러워 비행기를 3시간 이상 탈수 없다든지 또는 관절이 약해 걷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려 대화에 지장을 준다고 또 미국 동기들 중에는 본인이나 부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던지 치매 증상이 있어 결국 한국 동기들은 유감스럽게도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고 미국 동기 6 부부가 크루즈 배에 올랐다. 조금 늦게라도 동참한 김진수와 정상국 동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몸이 불편한 김진수 동기와 또한 12년이나 같은 크루즈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부인의 거동이 불편한데도 동참한 우리 왕회장 김용재 동기에겐 무어라 고마움을 표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갑자기 어딘가로 떠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일 것이다.

배에 오르기 전 뉴욕 근방에 살고 있는 동기들이 우리를 위해 점심 식사를 뉴저지 한국 식당에서 대접을 했는데 펜실베이니아 해즐튼에 사는 윤명선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최순채, 최영자, 황철, 이명희 및 이영일 부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새삼스럽게 가졌다. 최영자 동기의 남편이 걷기가 불편했다는데 회복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늙어가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고 세월의 탓이라고 하며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의아해진다. 또한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이고 우리 인생은 바느질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프고 외로운 것은 살아있음의 특권이 분명하고 살아 있으므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Enchanted Princess 배는 14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배로 19층 데크까지 있고 거의 4천 명을 태우는 최신 배로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식사는 일품 요리로 모두가 만족했는데 새로운 배인지 service나 management는 수준 이하였다. 무엇보다도 승선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검사는 장사진을 치고 5시간을 서 있게 만들어 모두의 불평을 피할 수 없었다. 배 안의 internet 연결 또한 힘들었고 VPN 연결은 60분을 내고 speedy internet을 샀어도 안되어 매일 많은 논문을 review 해야 하는 내게는 아주 큰 문제였다.

우리들은 전과 달리 각종 게임, 운동,

댄싱 등은 못하고 영화나 production show들을 보고 시간이 나는 대로 wedding chapel에 모여 조의열 동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찍어 모은 사진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동수 동기가 최근 조의열 동기를 닮아 가려고 열심히 사진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그림, 사진, 음악 등은 우리의 생을 활기 있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우리는 Hurricane Fiona 때문에 예정했던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항해를 하여 보스턴 항구에 내려 그곳 터주대감인 정상국 동기 안내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스턴 항구를 누볐는데 역사적인 보스턴 하버 호텔에서 배 안의 카지노에서 탄 돈으로 맛있는 커피를 대접받았고 Quincy 마켓에서 명물인 랍스터 롤과 클럽 차우더는 모두가 즐기는 점심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게 오픈 하우스 날이라 유명한 Boston Fine Art Museum을 공짜로 들어가 Egypt, Ancient 및 European 그림과 조각들을 감상했다.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김은한, 정정욱 동기들을 만나볼 수 없었음은 안타까웠다.

다음날에 우리는 캐나다의 가장 오래된 항구인 St. John에 내려 용재 부부는 hop on and off bus로 관광을 했고 의열이와 동수는 사진 찍기 위해 택시로 나갔고 우리는 걸어서 200년이 넘는 영국식 교회도가 보고 세계에서 제일 조수 차가 크다는 곳도 가 보았는데 한 시간이 걸려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지만 강행군을 강요해서 다리가 아픈 여자분들에게 미안했다. 배 안에서 캐나다 시간으로 한 시간 앞당기어 약간의 혼동이 있어 golf putting 시합을 놓쳤다.

Hurricane Fiona가 더 강세로 캐나다에 오는 바람에 1912년 Titanic 배가 700마일 근처에서 침몰하여 maritime museum이 있고 Peggy cove가 있는 Halifax 항구에 내리지 못해 coast scenic 구경과 맛있는 lobster wrap lunch를 놓쳤다. 배 안에서 ping pong이나 골프 시합도 배가 흔들려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천재지변 또는 병고로 고통을 주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에서 왜 잠잠히 계시나 하는 질문에 합당한 답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망가질지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서 고난이 축복이 되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행복할 때의 구심을 갖게 되고 빛깔이 바래지 않는 뜨거운 가마의 도자기처럼 또는 정금 같은 연단으로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불변하다고도 말한다. 쿠노 휘셔도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

든다고 말했다. 몸이 아플 때가 있기에 건강의 감사함을 느끼고 실수 때문에 신중함을 배우기에 결국 우리 삶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

노인 심리학자 브룸 리는 인생의 ¼은 성장하면서 나머지 ¾은 늙어 가면서 보낸다고 말했다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모든 일에 열정이 필요하다고 앙드레 지드가 말했다. 인생은 길이고 삶은 길을 걷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 연약한 사람에겐 언제나 슬픔만 있고 위대한 사람에겐 언제나 소망의 웃음이 있다.

김형석 교수는 65세에서 85세까지가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 삶의 황금기라고 한다.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나를 위해 한 일은 남은 게 없다고 하면서 이웃과 사랑 나눔, 사회에 도움 주는 일 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마지막에도 남는다고 했다. 늙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분노를 잘 참아야 하며,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동행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큰 힘이 될 것이고 카톡을 보내주는 이는 늘 정겨움을 느낄 것이다. 마음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작은 것 일상 속에 있다고 한다. 황혼의 멋진 삶은 건강입니다.

이영령 교수가 본인은 친구나 동행자가 없어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살면 풍성해진다고 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부모, 선생님 그리고 친구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좋은 축복된 만남이 삶을 신바람나게 또 행복하게 만든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쪽으로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반면 좋은 삶을 살던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 시궁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을 최근 독일의 유명한 의사이면서 유전학자이고 신경과학자인 요하임 바우어가 쓴 책, "공감하는 유전자"(매일 경제신문사, 2022)에서 과학적으로 증거하여 50년 전 나온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설을 바탕으로 가설적인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을 정면으로 도전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적 본성을 기술한 이 책에서 인간만이 유전을 공유하여 기쁘거나 슬픔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감정을 공유하면 서로의 몸 안에 있는 유전인자들이 발현하는 더 좋은 단백질이나 호르몬 등이 나오거나 homeostasis를 유지하여 초인간적 기적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만남을 통해 행복해지고 즐겁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주위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슬픈 시대에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이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귀한 하루하루 삶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자신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조용히 얘기 듣고, 나누고, 미소 짓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모두 많은 동기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다시 만나 삶을 논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인 66년도 동기 56주년 기념 크루즈 여행은 예상대로 배 안에서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학창 시절의 얘기 (김진수는 해부학 실험 탁자 번호까지 기억), 지나온 우리들의 삶, 현재 처하고 있는 각종 문제, 그리고 알 수 없는 닥쳐올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지냈다. 서로의 유전자 DNA 염기의 배열이

0.8% 정도의 다른 점으로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다른 것은 신기하고 우리를 정교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원숭이와 인간의 DNA는 96-98% 비슷하나 RNA는 36% 정도 비슷하다 하니 발현되는 각종 좋은 또는 나쁜 protein, hormone, enzyme 등의 질과 양은 많이 달라 진화론의 가설은 신빙하기 힘들다.

한동수 부부는 여행 후 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장으로 달려가야 하기에 나머지 다섯 가족 10명은 마지막 아침 식사를 buffet가 아닌 formal dining room으로 가서 잘 먹고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친구들을 보고 눈물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뉴약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연발하여 시카고에서 연결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 갖은 힘을 쏟아 뛰는 문제가 있었고 옆자리 인도 계통 젊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 약간의 콧물, 가려운 목구멍으로 일어나는 기침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검진을 를 해보니 positive로 나와 5일은 한국에 와서 격리를 하게 되겠다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국은 10월 1일부터 모두 방역 검진을 해제했기에 호텔로 바로 올수 있어 너무나 기뻐했다.



지난 12년 동안 일 년에 두 번은 다녀본 인천 국제공항은 새삼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보였고 15분 만에 공항을 나올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은 과연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공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가장 큰 의학적, 경제적, 사회 죽음의 문제에 있어 정부나 전문가의 지침을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충언한다.

한국은 일찍 진단 kit 등을 개발해서 대량 검진, 격리를 시행하여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나 세계 부호 빌 게이츠는 "한국을 배워라"라고 외쳤고 한국은 노아의 방주를 비유해서 인류의 주인공, 초벤저스 (corona avenger)라고도 알려지고 얼마 전 세계적 미래 학자들도 2050년경에 "GUTS"(Germany, United States, Turkey, South Korea) 시대가 온다고 예측했는데 한국민의 근면성, 수학이나 공학의 학구열, IT 강국 그리고 기독교 evangelism 영향 등이 한국을 지적인 이 유라고 한다.

유발 하라리는 "폭풍 후 다른 신세계"를 말하면서 세계 인류화, 도시화, 환경 변화의 불확실하고 위험한 경제 미래의 new pandemic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미 초연결 시대를 만들고 on line, zoom 등으로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나는 호텔에 와서 콧물이나 기침이 완전히 없어졌고 기분이 상쾌해서 이 글을 마치고 있다.

우리 동기 모두가 함께 한국에서 만든 크루즈 배를 타고 한국 남해안가를 다니며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먹고, 역사적인 여수, 통영 해변가를 거닐며 끝없이 지난날 또 현재와 다가올 마지막 날까지의 얘기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듣고 얘기하고픈 생각과 꿈을 꾸고 싶다. 다들 건강히 있기를 기원한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66년도 동기 회장 김 의 신

반쪽의 반쪽



허선행(64, 대뉴욕)

우리가 모두 어렵게 살 때, 말하자면 8.15 해방 후 6.25 전후로 적어도 10-20여년 시절에는 쌀 한 알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형제지간 및 이웃 간의 의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실한 가정 및 사회 교육이 뜻하지 않게 공산주의(共産主義) 사상의 밑바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공산과 나눔의 혼동)

이렇게 알팍한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넘어간 정치인, 지식인, 예술인, 특히 노동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모두들 그 사상의 헛된 현실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미 빠져 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인구도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각설하고, 1945년 조선 땅의 해방(8.15 해방)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온전한 해방이었는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무기빠서 미쳐 남북으로 나누어진 사실도 대부분 우리 한민족은 개의치 않았거나 해방 빼놓고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을 것이다. 누가 말했듯이 반쪽 해방(解放)이었다고 하면 옳은 판단의 발설이라고 본다.

어느 미군 장교(?)가 너무 쉽게 소련 대표와 합작해서 38선을 가로질러서 남과 북으로 갈라 놓으면서 북쪽은 소련에 인접했기에 소련이, 남쪽은 미군의 입시 통치(?)를 받게 되는 해방이었으니 지금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반쪽 해방일 수밖에 다른 판단이 안 선다.

단군(?) 이래 우리 역사는 국가적 수모와 비극으로 짙어 있었고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던 최악의 수모와 비극이 끝났는가 했더니 이북의 남침(6.25 전쟁)이 있었으니 우선 인명 피해만 해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의 살생을 능가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한동안 6.25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도 있었다고! 아마도 노벨 평화상까지 탔다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다른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났던 해피 망치한 일이 아니었을까? 사실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바이다.

Un과 미국의 도움이 있었어도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때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여하간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젊은 아이들의 체력이나 키가 일본에 비해서 무척 뒤떨어져 있었다고,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본 그 당시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이제는 70-80세 전후의 노년층에 속하고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면서, 빨갱이 사상과 그들의 잔인함을 누구보다도 더 당했고, 죽을 고비를 겪어 온 세대라고 강조하고 싶어졌다.

현재 50-70세 안팎의 한국인들은 6.25-9.28의 뜻과 후유증을 잘 모를 수도 있겠고 한국 경제부흥의 주역을 맡았었으나 공산주의 참돛과 잔인함은 더 잘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여기 그 뱃속을 모를 젊은이들, 6.25를 남한의 북침으로 알고, 번지르르한 이북의 정치사상을 은근히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한국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갈라지는 한국의 정치이념(좌파 빨갱이 사상)을 보면서, 이조시대(좌파 빨갱이 사상)를 보면서, 이조시대의 사색당파(동인에서 갈라선 남인과 북인, 서인에서 갈라선 노론 소론)가 끝내 이조시대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온 주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선거 양상을 보아도 소위 좌파의 세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한국 전 국민의 거의 50%가 그들을 지지했으니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고 판단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 77년, 또 이제는 남한 안에서 남서와 남동으로 갈라지니, 반쪽의 반쪽 행렬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갈지!

단결 못하는 한국인의 유전인자를 바람직한 인자로 하루속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성진의 황제



이근웅(67, 남가주)

지난 7월 26일 조성진이 나성의 Hollywood Bowl에 와서 베토벤의 황제를 연주했다. 17,500석의 아름다운 야외음악당은 거의 만원이었다.

물론 Chopin competition의 우승자인 조성진의 명성 때문이었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다. 한국 청중들도 많이 보였다.

입구에서는 모든 입장객들에게 태극무늬 부채를 나누어주기도 했고 LA Phil 단원들에게는 음악회 시작 전에 떡볶이, 떡갈비가 포함된 한국 전통음식 상차도 대접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

날씨도 완전무결했다. 드디어 더부룩하고 곰습곰습한 머리와 양볼에 보조개가 귀여운 지휘자 두다멜(Dudamel)과 우리의 자랑인 조성진이 등장했다.

LA Phil의 웅장한 E♭ Major 화음을 이어받아 조성진의 당당한 Passage는 벌써 청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두다멜과 조성진의 황제 연주는 완벽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든 분위기를 압도했다.



매 악장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 우리 부부도 따라서 같이 박수를 쳤다. (보통 Disney Hall에서 연주할 때는 매 악장마다 박수를 치지 않는다.)

40분 이상의 연주시간이 어떻게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기립 박수(Standing ovation)가 끊임없다. 조성진은 피곤할 텐데도 청중들의 성화와 두다멜의 권유에 앙코르 곡도 선물했다

악성 베토벤에서 250년 후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야외음악당, 화려한 조명 아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황제를 연주할 것을 과연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베토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 생각하며 별들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터미션 후에는 LA Phil과 두다멜이 베토벤 5번 "운명" 교향곡을 연주했다.

맨 처음 소절, 우리의 귀에 익숙한 "따따따따... 앙..."이 나오니까 청중들이 반가워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는데도 우리는 아무 거부감이 없었다.

마치 무대에 뛰쳐나온 나훈아가 부르는 노래의 첫 마디에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관중들이 연상되었고 모두들 마음껏 즐기는 분위기에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언제나 들어도 마음을 시원하게 띄어주는 4악장의 Brass 소리,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가는 두다멜과 그의 오케스트라, 곡을 끝내기가 못내 아쉬운 듯 반복되는 마지막 Coda ...

모든 사람들을 열광케하는 베토벤의 두 개의 5번 (piano concerto 5번, 심포니 5번) 연주의 밤은 너무도 황홀했다.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환상적인 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후기: LA Phil 단원들이 조성진 연주 후 인터미션 시간에 저희들끼리 "Lang Lang보다 조성진 연주 스타일이 훨씬 좋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LA Phil 단원인 우리 집 막내가 엿듣고 그도 내심 흐뭇했다고 말한다.

어느 여름이 거의 끝나가며 오랜만에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에 LA 남쪽에 있는 Long Beach에서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 이곳은 Lion Lighthouse라는 등대도 있고 한때 잘나가던 유람선이었던 Queen Mary 호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수족관도 있고 주위에는 미각을 당기는 음식점도 많아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즐겨 찾아가는 곳이다. 등대를 돌면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크기의 크루즈 배를 타고 바다로부터 해안가를 감상할 수도 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석양의 황홀함에 빠져들 수도 있으며 해진 후에 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것도 이곳을 찾았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이가 먹어가면 구경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마음 먹고 집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렇게 좋은 걸 왜 주저했지?'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의 친구, 학교 친구도 좋지만 취미를 같이하는 동호회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방면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등산이나 사진 같은 동호회는 거의 야외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열려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 이날도 모여서 별 의미도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흠뻑 젖어서 여기저기 눈에 띄는 것(대상/경치/모습)들을 사진에 담았다. 야자나무들이 저 밑에서 호위병처럼 둘러싼 가운데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등대, 저 멀리 Queen Mary 호를 배경으로 바다 물가에 자리 잡은 형형색색의 건물

들, 준비하게 정박해 있는 배들, 그리고 그 사이를 이리저리 미끄러지며 다니는 크고 작은 요트들,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며 물러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걱정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잠



Long Beach 에서 생긴 일

나 두 섭(73, 남가주)

시간 만이라도 딴 세상에 온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하여 야경이 시작되기 전에 물가를 돌아서 걸으며 신기한 모습으로 장식된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가로이 무리 지어 걸어가 있는데 갑자기 한 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Do you have 75 cents?" 그 아이는 나에게 물었다. "Maybe."라고 대답하고 지갑을 뒤져 보았다. 나는 동전을 안 가지고 다니는지가 오래되었다. 상점에서 동전

을 거슬러주면 거기 놓여있는 통에 넣는다. 예전에 동전을 가지고 다닐 때는 그것 때문에 주머니에 구멍이 나는 수가 많았다. 그래도 1불짜리라도 있겠지 하고 찾아보았는데 없어서 5불짜리 하나를 그

랫동안 새겨져 남아 있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들은 '성냥팔이 소녀'가 연상되었다. 내가 그녀 옆에 있었으면 성냥을 사 주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 소녀가 그 날 밤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놀아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곤 한다. 그런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자식들도 그런 나이가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인가? 무슨 이유이건 간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따뜻한 눈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도 여유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 가벼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식사를 끝내고 야경 사진들을 찍었다. 등대는 여러 가지 색깔로 조명되었고 건물들의 불빛과 가로등의 빛이 물 밑에 반영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맛있는 풍경,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요즈음은 가끔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먹으면 흔한 것이라니 하고 생각한다. 대체로 다시 곧 잠에 빠지곤 한다. 그런데 오늘 밤은 어제 만난 그 어린이가 눈앞에 어른겨려 잠에 다시 잘 빠져지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잘 자라겠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이제 더위는 한물 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 사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오페라를 즐기는 도중 유엔 국제합창단 (United N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hoir)에 초대받아 Join 하게 했는데 그것은 우울한 의사 세계로부터 노래하는 밝은 삶의 세계로 이끌어준 축복이었으며 그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글을 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원래 공대를 지원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말까지 고집하다가 지원 마지막에 외아들인 나에게 부모님이 희망하시던 의대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대 입학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서 물리반 후배들은 내가 낙방한 줄로 알았는데 선생님이 내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납니다. 청량리 의예과 시절에 나는 새로 생긴 음악 감상실에서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페라를 듣고 음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대 시절 나는 피를 보는 것이 두려웠던 때도 있었고 실험 시간에 까무러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의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1975년 휴스턴의 Texas Heart Institute에서 마취를 전공하여 수련 후 개업을 했습니다. 텍사스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재미 한인사협회'를 형성하다가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과 연락하던 도중, 그때 마침 Asia Society에서 Festival of Korea를 개최할 때에 텍사스 주지사인 Ann Richard의 proclamation을 부탁 받아 사무실에 연락하여 초안을 보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정세는 등소평의 방미 후 최초로 신설한 휴스턴 중국 영사관에 마침 후일의 아버지 대통령 Bush가 초대 중국 대사가 되고 이것이 중국과의 냉전이 풀리는 세계정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각 성의 약 100명의 대표단들이 휴스턴에 와서 money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휴스턴 시장은 우리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 대표단들이 그때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그 냄새가 대단했습니다.

'Festival of Korea' 총회 때 나는 약 90개국의 총영사들이 모인 곳에서 주지사의 proclamation을 대독한 후 휴스턴 오페라에서 Turandot 공연을 할 때 영국, 독일, 불란서, 호주,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총영사들과 같이 관람했습니다.

그 후 나는 휴스턴 오페라에서 초대받아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디렉터 David Gockley와 지휘자인 Patric Summer의 소개로 volunteer로 20년간 Hospitality committee에서 일해왔으며 각국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러 오는 가수들을 공항에서 호텔로 데려다가 공연 동안 host 하면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Wagner의 Bayreuth Festival의 무대 장치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는 Bayreuth festival의 무대를 다시 바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의 단장을 host 했는데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세트를 빌려주어 가지고 와서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발런티어 중 오스트리아 영사관 직원이던 Cooper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페라 실황 도중 오페라 가수들이 백스테이지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들에게서 T-셔츠에 싸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때 받은 그 티셔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HGO studio에서 하는 오페라 가수 학생들 중 Ana Maria Martinez를 사귀었는데 Puerto Rico에서 온 소프라노로 Placido Domingo와도 공연했습니

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Madame butterfly 중 "어떤 개인 날"의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 발런티어 중에 전해 오는 이야기로 유명한 스타가 되면 fly away 한다고 합니다.

David Gockley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지휘자로 전근된 후 은퇴했고 지휘자인 Patric Summer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간혹 지휘하며 아직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의 상임 지휘자로 아직 일합니다.

2004년 United Nation Association Chapter에서 마침 중국과 인디아 총영사가 참가하는 테이블에서 host 할 때 초대된 유엔 국제합창단에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 후 지휘자가 나를 합창단에 초청했을 때 오페라에서 감상하는 것보다 음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쾌히 그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세계 각국의 싱어로 약 120명의 단원으로 각 나라에서 음악에 종사한 사람들과 그 애호가들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매년 봄과 가을 정기 합창으로 세계 각국 노래를 약 700곡을 그 원어로 불렀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자기 나라말을 가르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리랑을 부를 때 발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들 타국의 언어를 배우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지휘자인 Phillip Kloeckner는 Rice 대학 음악교수로 organist이며 소련과 독일계의 사람으로 푸쉬킨의 시를 작곡한 Wintry Road는 매우 아름다운 노래로 눈 오는 소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들을 모아 합창을 한 공연들 중에서 독일의 Wagner의 오페라 탄호이저의 아리아, 체코의 Smetana의 오페라, The Bartered Bride의 아리아 등은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Rice 대학 Sherperd music auditorium에서 full orchestra와 같이 공연한 유대인 노래 Avodath Hakodesh는 스위스-아메리칸 작곡가 Ernest Bloch (1880-1959)의 작곡으로 Jewish synagogue music으로 reformed Sabbath liturgy 입니다. 특이한 것은 작곡자의 허락 없이 연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연주 중 작곡자의 가족이 참관했습니다.

이태리의 두 번째 애국가라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아리아 Va, pensiero를 이태리 단원에게서 발음을 배운 후 Rice 대학에서 공연 전에 복도에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게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 즐겼습니다.

매년 하는 정기 합창 이외에 휴스턴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에 우리는 합창을 계속하여 수많은 교회와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Hobby center 등 각종 단체에서 초대를 받아 합창했습니다. Shell 석유 회사에 온 네덜란드 합창단원이 한동안 매우 활발하여 네덜란드 노래와 휴스턴 Shell 본사에 가서 여러 번 행사에서 합창했습니다.

지휘자와 즐기며 합창하던 도중 Phillip Kloeckner가 시카고 대학으로 전근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휘자로 Erick Esparza가 왔습니다. 그는 히스패닉으로 라틴 음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브라질 하계 올림픽에서 부른 Bossa nova 노래인 The girl from Ipanema는 모든 대원이 즐겼습니다. 라틴 음악은 템포도 빠르고 매우 정열적입니다.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페인의 출품작으로 선정되어 콘테스트에서 2위를 차지한 Eres Tu (당신은)는 우리들이 많이 즐긴 노래입니다.

가을 식당

김 병 오(69, 버지니아)

오랜만에 도서관 다니러 왔다 만난 출출한 점심 시간

무심히 가을 바람에 실려 낙엽 몇 잎 굴러가는 商街에 들어서다
긴 건물 끝에 인적 없어 눈에 띈 새로운 식당
밖을 내다보는 젊은이가 주차장에 떨어지는
플라타나스 잎을 세고 있다

아내가 안쓰럽게 뒤 돌아보며 발길을 끌며
단골집 가던 길 돌려 인심쓰듯 들어선 식당

선뜻 자리를 잡기에 너무 고요해 천정에 머문 시선
안내하는 여인이 지정하는 곳보다 뒤로 앉으며 메뉴를 받는다
한 달 째예요 더운 물을 드릴까요
마스크 쓴 눈매에 잔주름이 곱다

아까 본 젊은이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허전한 등을 보인다
중고상을 거친 식탁과 의자에서 눈물자국 묻어나고
종이꽃들이 새롭게 마음 먹기를 주저한다

여인은 분주히 식당을 오가며 수저를 다독이고
흐트러짐 없는 메뉴를 다시 정돈한다

시간은 한참 정점을 지나고
주방장과 여인이 함께 식사를 하며 낙엽이 쌓인다

간이 잘 맞고 아주 맛있네요
굳었던 얼굴에 피가 돌며 紅玉처럼 붉어진 들은 차례로
함박 웃음을 웃는다

우리는 손님 들어오기를 기다려 더 오래 앉아 있고
식당부부는 두 손을 모으며 첫눈을 기다리듯 창밖을 바라본다

아내와 나도 낙엽지는 주차장을 내다보며 모퉁이에 핀 가을꽃처럼
조그맣게 사는 기쁨들을 세고 있었다

2015년 우리 합창단에서 유로피안 투어 콘서트로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프라하로 여행하기로 결정해서 약 50명이 참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연할 12곡의 합창을 연습하는데 '아리랑'이 제일 먼저 뽑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즐길 음악을 지휘자가 어떻게 정하는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미국 음악인 재즈 곡들과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등이 있어 기뻐했습니다. 연습 도중 나는 아리랑의 발음을 가르쳤습니다. 떠나기 전 최종 음악 순서가 나왔는데 '아리랑'이 첫 번이었습니다.

유럽을 떠나기 전에 Vienna New Year's Concert 하는 Musikverein에는 미국에서 사 두었던 입장권으로 갔습니다. 연주 중 놀라운 사실은 영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로 책자도 모두 독일어였습니다.



Musikverein에서 불란서 쏘프라노 부부와 Dutch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비엔나는 모차르트의 도시로 commercialize 되어 모차르트가 살아있을 때 왔다는 카페, 그가 치던 Hapsichord 등이 있었고 그가 살아 있을 때 활약했던 Bratislava, Prague, Vienna의 그의 발자취를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여러 음악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리스트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 도시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프라하에서 모두 공연을 마치고 프라하의 공원에 오니 안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지휘자인 Erick Esparza가 또다시 시카고의 DePaul School of Music에 교수로 임명되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좋아했던 지휘자라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에서 예외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발런티어를 모집하여 그가 있는 시카고의 대학으로 가서 그의 제자들인 음대 학생과 같이 합창으로 페어웰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약 30명의 발런티어들이 시카고에서 페어웰 파티로 합창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지막 합창 연습까지 마치고 2019년 Road Home을 연기한 후 Zoom으로 세계 합창단원과 소통하고 Virtual로 6개의 합창을 했습니다. Dona Novis Pacem은 Virtual로 마치고 휴스턴의 Rothko Chapel의 50주년 기념행사에 Mark Rothko의 14개의 그림이 걸려 있는 8각형의 chapel을 배경으로 노래했습니다. 2020년에는 Virtual Choir로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와 협연했고 2021년에는 "The Gift of Music" 합창할 때 휴스턴 시장한테서 그날을 유엔 국제합창단의 날로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그의 오페라 '이고르 왕자'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알렉산더 보로딘(1833. 11. 12-1887. 2. 27)은 의사이며 음악가로 어려서부터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중에서 참가자로 바뀌며 경험한 나의 음악생활에서 기억나는 순간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세계의 합창단원과 노래할 때는 음악의 화음이 서로를 가깝게 해주고 그 신비로운 힘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3년 만의 해외여행(Three year itch)이었다. 3년 전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포기한 후 3년 동안 암흑기를 지냈다. 이번에 용기를 내어 Iceland와 Greenland 여행을 신청해 놓고 한 일 년간 전전긍긍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지, 열이 있거나 양성검사가 나오면 비행기도 탈수 없고 모든 예약금이 몽땅 날아갈 위험이 있었다. 설사 갈 수 있다고 해도 여행 중에 병이 걸리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 더 고생일 것이었다. 두 손 모아 만사가 무사히 해결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오자 다행히 해외여행이 완화되었다. 시카고에서 6시간 반 걸려 아이슬란드의 수도 Reykjavik에 도착했다. 날씨는 화창하였으나 조금 쌀쌀한 늦가을 날씨였다.

Reykjavik는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였다. 고층 건물도 없고 인파로 붐비지도 않았다. 이곳에서는 개를 볼 수 없는데 Echinococcosis라는 전염병을 옮긴다



하여 1924년 법으로 개 사육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인구는 35만이라고 하는데 그중 12만이 레이카비크에 산다고 한다. 호텔이라고 해 봤자 미국의 작은 여관(Inn) 정도 밖에 안되고 그나마 몇 개 안 되어 성수기에는 예약하기도 힘들다. 호텔 값도 만만치

않고 한번 예약하면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곳 주민의 대부분은 바이킹의 후예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고 다른 인종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국민 소득은 높고 민도도 높다. 그러나 물가는 비싸고 미국 돈은 받지 않는다. 유로는 받는데 그것도 한참 계산해야 쓸 수 있고 거스름돈은 아이슬란드 돈으로 준다. 다행히 크레딧 카드는 어디서나 다 받아 그것으로 대부분 결제를 했다. 이곳 이름이나 지명은 스펠링이 복잡하여 기억하기가 힘들고 아이슬란드어로 되어있어 발음하기조차 어렵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Hallgrímskirkja 교회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이 나라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현 무암 주상절리를 상징하는 기둥과 산, 빙하, 폭포, 바이킹의 모자를 본떠 디자인한 콘크리트 건물인데 내부에는 거대한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건물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시내 전체가 눈에 들어온다. 교회 앞 광장에는 미국 정부가 기증한 Leif Erickson의 동상이 있다. Leif Erickson은 아이슬란드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다.

내륙 지방은 화산과 빙하로 되어있고 도시는 대개 해안지대에 있다. 그래서 어업이 중심이고 해물 식당이 많다. Cod, Salmon, Lobster 등이 흔한데도 랍스터 요리 2인분에 120유로나 받는다. 식당 분위기는 좋고 음식도 맛있었다. 일행 중 와인 전문가가 있어 골라가며 맛있는 와인을 즐겼다.

레이카비크에서 50분 정도 거리에 Blue Lagoon이라는 야외 온천장이 있다. 매우 독특한 천연 온천장으로 세계 10대 온천에 속한다고 한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검은 용암에 둘러싸인 넓은 유백색 아쿠아 마린 석호(石湖)인데 유황 냄새는 나지 않았다. 흰색과 검은색 mud를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마사지를 하면 얼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는데 나는 별 효험을 보지 못했다. 비행장에서 20분 거리 밖에 안 되어 유럽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서 온천욕하고 당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한다.

남서부 지역에 골든 서클이라는 3대



Iceland/Greenland 기행

노영일(68, 시카고)

명소가 있다. Strokkur라는 간헐천(geyser)은 5분마다 35미터의 높이로 온천물을 뿜어낸다. Gulfos 폭포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에서 녹은 물이 62미터의 깊은 협곡으로 떨어져 장엄한 '황금폭포'를 형성한다. 싱벨리어 국립공원은 옛날 추장들이 매년 여름 연례 회의를 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자연호수가 있고 다양한 물고기와 조류들이 서식한다.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판이 갈라진 곳도 볼 수 있다.

남부 해안을 따라 가다보면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폭포 중의 하나인 Seljalandsfoss 폭포를 본다. 폭포 뒤로 걸어 들어가 동굴 모습도 볼 수 있다.

근처에 Dyrholaey bird sanctuary가 있는데 이곳에서 Puffin이라는 아이슬란드 상징인 새를 볼 수 있었다.

해안으로 나가면 검은 모래사장 (Black Beach)이 있다. 모래와 자갈들이 모두 검은색이다. 이곳에는 주상절리로 둘러싸인 레이니 스파라는 곳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이다. 근처에 Vik라는 자그마한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 있다.

Vick 근처에 Katla 얼음 동굴이 있다. 가는 도중에는 화산 폭발로 재에 덮인 빙하와 화산들이 보이는데 마치 화성에 온 것 같은 풍경이었다.



이곳에서 외계를 무대로 하는 영화들을 많이 촬영하였다고 한다. 빙하는 잇따른 화산 폭발로 층층이 검은 화산재가 보이는데 지구 온난화로 계속 녹고 있었다. 이곳 풍경은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한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화산 폭발이 가장 빈번한 나라인데 2010년 큰 폭발로 유럽 전체 항공운항이 며칠간 중단된 일도 있었다. 역설적으로 그 후 아이슬란드 관광이 엄청 늘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도 용암을 뿜어내는 화산이 있다. 우리가 한 시간 이상 걸어 보러 간 큰 빙하동굴은 얼음이 녹아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못 들어가게 하여 그 옆의 작은 동굴에 들어가 보았다.



섬의 동남부에 Skaftafell National Park가 있다. 이곳은 인스텔라 촬영지로 유명하다. 방대한 빙하지대와 빙하강 호수로 아이슬란드의 보물이다. 이곳에서 보트를 타고 iceberg가 떠내려가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또 이곳에서 빙하 트래킹을 하며 빙하 위를 걸어가며 볼 수 있었다. Fjord를 따라 흘러 내려간

iceberg가 바다에 들어가면 염분 때문에 녹아 작은 얼음덩이로 변하는데 이 얼음덩이가 비취에 밀려 올라와 마치 다이아몬드같이 보인다. 이곳을 다이아몬드 비취라고 하는데 이 바닷가를 산책했다.

동부로 가면 Seydisfjordur이란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 이곳을 산책하고 말을 타보기도 했다. 이곳 말들은 체구가 작는데 강하고 힘도 세다고 한다. 바이킹이 작은 배에 말을 싣고 오노라고 작은 말을 골라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조랑말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한다. 이 말들은 뿔 때 오른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이 함께 나가고 다음에 왼쪽 앞발과 왼쪽 뒷발이 나간다고 한다. 보통 말들은 양쪽 앞발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양쪽 뒷발이 나가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 타지역으로 반출된 말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 종종 보존을 위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근처 Myvatn에 야외 온천장이 있어 온천욕을 했다.



동북부 담무보리기르에는 용암 기둥과 웅장하게 빙하물을 쏟아내는 폭포와 유황천, 분화구 천지 등을 볼 수 있다. 지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보이고 온수를 도시로 보내는 파이프라인들이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청정지역이다. 전기나 난방은 지열을 이용하여 해결하여 무료이며, 물은 빙하 녹은 샘물을 먹는데 수도꼭지에서 그냥 받아먹으며 물맛이 매우 좋다.

용암과 빙하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horseshoe 캐년에 갔을 때는 비바람이 심하여 몹시 추웠다.

북부에는 아이슬란드 제2의 도시인 Akureyri가 있다. 이곳에 있는 성당은 레이카비크에 있는 성당과 같은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고래 구경을 했다. 북극해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서해안을 거쳐 다시 레이카비크로 내려왔다. 아이슬란드 섬을 완전히 한 바퀴 돈 것이었다. 여기서 오랜만에 타보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걸려 땅 끝이라는 그린란드로 건너 갔다.

그린란드의 Narsarsuaq 공항에 내렸다. 공항이라고 해 봤자 너무나도 작고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을 공항으로 쓰고 있다. 전쟁 중 미국과 유럽 중간지점에 위치해 유럽으로 가는 군수품들이 이곳을 중간 기착지로 썼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매일 50-100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던 중요한 미군 기지였었다고 한다. 공항 바로 옆에 그 당시의 사진과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Naesarsuaq에는 약 150명의 주민이 영주하고 있는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은 덴마크 사람들이 와서 관광사업 등에 종사하고 8월이 지나면 너무 추워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 산다고 한다. 그 넓은 땅에 인구는 5만 6천 명이며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88%) Inuit(에스키모같이 생겼다)이고, 덴마크 사람들이 12%라고 한다. 이곳 원주민들도 미국 인디언처럼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육구 불만의 표현일지 모른다. 독립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냥 덴마크영으로 남아 있으며 덴마크 의회에 2명이 국회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국토의 80%가 빙하로 덮여 있으나 천연자원들이 엄청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호텔도 공항에서 한 일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풍경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나무는 없고 빙하가 덮인 민둥산과 벌판, 빙산이 떠내려가는 호수, 강뿐이었다. 포장도로도 없고 자갈이 깔린 산골길밖에 없다. 도시 간의 교통수단이 없으니 발전하기가 힘들 것 같은 당연하다. 배를 타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과 마을 사이도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들판에 양을 치는 것이 보이는데 다른 가축은 볼 수 없다. 인터넷도 호텔에만 있는데 Wi Fi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 병원도 없고 간호사가 운영하는 작은 진료소가 하나 있을 뿐이다. 학교에는 학생이 10명 정도이고 슈퍼마켓이라는데를 가보니 세븐 일레븐보다도 작은 규모였다. 차에서 내리니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눈, 코, 귀, 입 등으로 마구 들어온다. 그물로 된 모기망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다녔다. 밤에도 어둡지 않아 (白夜) 두터운 커튼을 치고서야 잘 수 있었다. 호텔 음식은 비교적 좋았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5시간 걸려 산길을 가니 Fjord에 iceberg들이 가득 흘러가는 광경이 보였다. 이 '하이킹'은 내가 체력의 한계를 느껴 간신히 쫓아갈 수 있었다.

다음 날 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산길을 한 시간 반 걸려 이갈리쿠라는 마을에 갔다. 300년 전 북유럽 시대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온 마을이 UNESCO 지정 문화유산이라 한다. 주민이 30명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는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방은 6개 조그만 바와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햄버거를 사 먹었다. 종업원은 모두 덴마크 사람들이다.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모습도 보였다. 여기서 5시간을 걸어가면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어 포기해 버렸다. 젊은 사람들은 배낭을 지고 캠핑해가며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린란드는 관광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은 다니기 힘들다. 그러나 크루즈 배가 이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모터보트를 타고 Fjord에 나가 빙산 관광을 했다. 각종 빙산을 가까이서 보고, 빙산 위에 올라가 걸어보기도 하였다. 빙하 조각을 깨어 잔에 넣고 마티니 한잔 따라 먹으니 그 맛이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온 천지가 빙하로 덮여 있었다. 시카고에 돌아오니 불같은 더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얼음 나라에서의 2주간이 꿈만 같았다.

동창회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www.snuma.net/xe/freeboard/204346
www.snuma.net/xe/freeboard/204348
www.snuma.net/xe/freeboard/204350

나종호(14) 동문 책 발간

나종호(14) 동문이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 서관'을 발간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나종호 동문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지만 항우울제 처방률은 최하위인 한국의 정신 질환과 치료에 대한 낙인을 완화하고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책을 했다고 한다.





Vienna의 추억; Franz 그리고 2 Gustavs

이 건 일 (68, 남가주)

젊었던 시절 나에게는 오래된 소원이 세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에 가보는 것, 두 번째는 슈베르트의 고향이었고 베토벤과 말러와 클림트가 활동하던 비엔나에 가보는 것과 알폰스 도테의 고향인 Provence, 그중에서도 Luberon 산에 가보는 것이었다. 그중 프로방스는 여러 번 다녀왔고, 잘츠부르크에는 두 번, 비엔나는 세 번 다녀왔으니 소원은 풀은 셈이다.

Franz

Franz Peter Schubert(1797~1828)는 비엔나 교외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음악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 1828년 31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600여 곡의 성악곡(대부분이 Lieder-가곡), 7개의 교향곡, 오페라, 피아노 곡과 실내악 곡들을 작곡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Erlkonig' (D. 328), the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Trout Quintet), the 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 Symphony), the three last piano sonatas (D.958~960), song cycles인 Die schone Mullerin(D. 795)과 Winterreise(D. 911) 등이 있다.

그는 1828년 3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연주회를 가졌고, 공식적으로는 장질부사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매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믿는 음악사 학자도 있다.

생전에는 많은 청중을 모으지는 못했으나 그의 사후에 펠릭스 멘델스존, 로베르트 슈만, 프란츠 리스트, 요하네스 브람스 등의 19세기 작곡가들에 의해 그의 작품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슈베르트는 서양 음악사 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 하나로 손 꼽히고 있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Schubert 생가, 현재 Nußdorfer Straße 54

그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가 살았던 비좁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과 방들을 보며 가난한 슈베르트 일가가 얼마나 궁핍한 생활

을 했었는지 상상해 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전시실에 마련된 음악 재생 기구로 그의 작품들을 들으며 만나질 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 아, 불쌍한 음악가, 돈이 없어 그렇게 흠모하고 좋아했던 베토벤의 음악회에 가보지 못하고 연주회장 앞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였다는 그 세상은 천재를 죽인다.

나는 왠지 기분이 처지는 날 밤에는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D flat, D960를 가끔씩 듣는다.

어둑한 저음으로 시작되는 연주는 저음으로 울리는 트릴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마치 그가 자기의 짧은 인생을 예감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중 나는 특히 Alfred Brendel의 연주를 사랑한다.

첫번째 Gustav

Gustav Klimt(1862~1918)는 오스트리아가 낳은 symbolist painter였고 Vienna Secession movement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클림트는 그림, 벽화, 스케치 등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그의 중요 관심 대상은 여체 (female body)였다. 또한 풍경화도 많이 그렸다.



Secession Building

그의 그림을 우연히 접한 후로 그의 그림에 빠져서 비엔나에 세 번 가서 여기저기 흩어진 그의 작품들을 훑아다니며 보았고 십수 년 전에는 캐나다의 수도 Ottawa의 National Gallery of Canada에서 있었던 클림트 특별전에도 가 보았다.

그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비엔나의 화단을 석권하던 화가였다. 기존의 미술계 질

이 이런 것하며 개인정보를 빼내 각종 손해를 막대하게 입힌다고. 아이고 무시라!! 나이드 우리를 세대, 봉인지? 눈 뜨고도 코 베어감을 당한다더니, 바로 이런 거구만!

문명이 고속도로 발전하다보니 별의별 부작용이 그 속도에 맞게 생기나 싶고 지능범죄들이 횡행되는 세상인 것 같아 가슴 철렁임은 물론이려니와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해서 사이버 보안사업이 번창하는가 보다.

순박한 세상이 언제 있었는가?

꽤 오래전 '대지'의 작가 필벽 여사가 한국을 처음 방문해 농촌구경을 하던 어느 여름날 오후, 지계에 장작이며 농기구인지 여타 짐들을 잔뜩 얹고 짊어지고는 텅 빈 소달구지를 터덜 터덜 몰고가는 광경을 보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으나 그 순박한 농부의, 한국인 마음씨에 작가로써, 한 여성, 아니 한 인간으로서 감동한 후 제2의 고국으로 오랜동안 살아왔던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된 후 고아 사업을 하며 한국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 알고 계시길 줄로 믿는다. 어찌 하루종일 퇴약별 아래서 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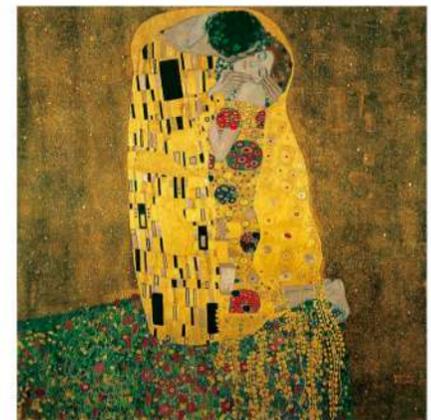
서에 대항하여, 미술의 Egon Schile, 건축의 Otto Wagner 등과 함께 Secession Movement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의 명성이 하도 높아 비엔나의 내로라하는 여류 명사, 지식인, 상류 계급 부인들이 그의 모델이 되려고 줄을 섰다고 한다. 그는 또한 그의 모델이 되었던 여자들과는 꼭 동침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고도 한다.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나 내연의 처와의 사이에서 자식도 많이 두었고 쉴 새 없이 바람을 피우던 정력가였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그 당시 Vienna/Austria-Hungarian Empire에 팽배해 있던 Anti-Semitism (반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화단의 정상에 오른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클림트의 대표작인 Beethoven Frieze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주제로 그린 벽화)가 Secession Building 지하에 있고 Wagner가 설계한 Karlsplatz Station이 그 부근에 있으며, 거기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그들이 자주 찾아가던 카페 뮤지엄이 있어서 들러서 찬 맥주 한 잔 하고 사람과 주위를 구경하고 그들에 관하여 마누라와 이야기하다가 나왔었다. Wagner가 설계한 또 하나의 작품인 우편국 건물이 역시 걸어가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 비엔나가 볼 기회가 있고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꼭 한 번쯤 들러 볼 곳들이다.



The Kiss. 1907~1908. Oil on canvas. 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두 번째 Gustav

Gustav Mahler(1860~1911)는 지금의 체코인 Bohemia에서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하여 비엔나에서 활동하던 지휘자, 작곡가였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망 후 한때 거의 잊혀졌었고, 나치 시절에는 연주가 금지되었었다. 1945년 이후에 재 발견되어 현재 21세기까지 그의 작품들은 자주 연주되고 있다.

2016년 BBC Music Magazine 조사에 의하면 151명의 지휘자들이 그의 교향곡 중 3개를 10대 명 교향곡에 선정하였다.

소에게 나를 편하게 하기위해 달구지에 짐을 싣고 나머지 그 위에 타고 가며 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가 작가가 이해한 요지. 감응한 이유, 한국을 중국보다 더 사랑하게된 연유! 한국인의 순박하고도 인정넘치는 민족임을 파란눈의 노작가는 놓치지 않은 해안을 가지셨던 것이다.

교육개나 더 받았단든지, 뉘품개나 좀 더 있다든지, 남들보다 자칭 좀 더 똑똑하다고 자만한다든지 하는 분들 너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며 끊임없는 탐욕(금전, 권력, 명예 기타 등등)으로 남들에게 허탈과 역겨움을 안기고 결국엔 자신을 망치고 있지나 않는지? 한중의 재로 돌아갈 것을 깜빡 잊었는가? 대성인들은 지팡이나, 목주 하나에 승려복 한 벌, 신부복 한 벌, 고무신 하나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지 않는가! 그분들 계신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하셨음이라!

요즈음 한국소식을 어느 누구는 아예 막아버린다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말장난의 곡예사들의 연극무대. 순박한데라곤 눈을 씻고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네, 嗚呼 오호 애재라!

Mahler는 anti-Semitism 언론과 반대 세력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지휘자 자리를 얻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1878년 간신히 Vienna Court Opera (Hofoper) 지휘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유능하고 명 지휘자였었고 특히 와그너, 모차르트, 도스토옙스키 연주에 탁월한 지휘 솜씨를 보였기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말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잠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2년 결혼한 그의 아내인 Alma Schindler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였고 계속되는 아내의 불륜으로 늘 고통스러워하였다. 후자는 그 원인으로 말러가 아내에게 '집안에 작곡가는 한 사람으로 충분해'하며 나름대로 작곡가였던 알마를 속박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알마가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다른 구스타프인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다고 하니 그의 여성 편력을 잘 아는 말러의 고뇌가 어땠을까는 쉽게 상상이 간다.

말러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정신분석학의 시조인 Prof. Sigmund Freud도 비엔나에 팽배한 Anti-Semitism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그의 새 학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후에도 비엔나 대학 당국은 그를 만년 조교수 자리에 있게 하였고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항의를 한 후에야 마지못해 겨우 부교수 자리를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나는 어느 날 오후에 우리 모교, 서울 의대의 옛 건물을 상기시키는 비엔나 대학 건물 (이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그 당시의 비엔나의 건축물을 많이 모방하여 건물들을 지었던 것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중정 (Court Yard)에서

Prof. Doppler, Prof. Freud의 흉상에 둘러싸여, 학생들이 토론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 옛날 학생 때처럼 벤치 위에서 잠깐 낮잠을 즐겼었다.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비엔나, 잊을 수 없는 도시, 한 번쯤은 꼭 가 보아야 하는 곳.

대만 침공 위협

이 회 백(61, 시애틀)

낸시 페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면 미국은 개입하겠다고 강경히 나서고 있다.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무력을 사용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무력으로 막았다. 그런 미국이 중국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것은 오만이다. 더구나 "하나의 중국"을 미국도 인정하는 처지에.

그러나 합치기 싫다는 대만을 원래 중국과 하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력으로 하나로 만들어겠다는 중국에도 문제는 있다. 이혼은 절대 불허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역지로 하나가 되는 게 중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공자와 맹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미국은 자기들이 도덕적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만 침공이 중국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득하는 게 미국이 취할 태도일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에 아무도(특히 영국) 간섭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멸망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중국이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닐까.

어리숙하고 순박하게 살 순 없을 까?

문 성 길(70, 남가주)

허- 참, 이들동안 내 컴퓨터를 사용 못하고 눈치보며 불편하게서 오래된 집사람 것을 몇번인가 사용했다. 웬고하니 어찌하다보니 "네 컴퓨터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를 정지시켰으니 도와줄테니 다음 무료전화로 연락하라"는 경고문구인지 친절(?)한 듯한 안내문구가 화면 가득히 장승처럼 버티고 있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 만지지 말고 컴퓨터 전원을 완전 차단하고 하루정도 기다려 보라고 해서 그리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되어 조카에게 드디어 도움을 요청 카톡 화상 통화하며 그의 지시대로 하여 이리저리한 결과 문제 완전해결. 조카의 말, 해커들

피카소의 그림이 난해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그의 그림에서 우리 눈에 익숙한 전통적인 美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피카소의 그림에서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것은 큰 대 식으로 말하자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찾는' 격이다.

미대 교수인 아버지한테서 어려서부터 그림을 배웠음에도 "In art, one must kill his father!"라며 전통과의 결별을 선언한 피카소였으니 말이다.

"To me art and sex are the same thing"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내어 뱉었을 때부터 피카소가 생각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진작 알아 봐야 하는 거다.

물론 평론가 Francine Prost가 갈파한 "Why does an artist paint?... He must be in love"처럼 고상하게 읊으면 피카소의 상스러운 소리도 말이 되기는 한다. "예술가들은 진정한 사랑의 순간에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순간의 격정이 바로 영감이며 그것은 예술 행위로 표현된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 섹스니 뭐니 해서 다소 천박하게 들리기는 하나 피카소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자기의 작품집을 논하며 "Painting is just another way of keeping diary"라고 말한 대로 그의 작품들은 끊임없는 그의 여성 편력을 그린 일기장이다.

못 말리는 바람둥이의 일기장이다.

그의 작품에는 그를 거쳐 간 많은 여자들이 등장한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된 모습들이긴 하지만 모두 다 그에게 새로운 화풍을 시도하게 해 줄 만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이다.

말하자면 피카소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 넣어 준 Muse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지만 자기의 절친을 자살로 내어 몬 여자까지도 꼬여서 동침을 했을 정도니 그의 바람기는 보통 정도가 아니라 Sex-oholic 수준이다. 열반은 Feminist들이 피카소라면 치를 떨며 악다구니를 퍼붓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스페인의 Malaga에서 1881년에 태어난 그에게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

당시 유럽은 산업화의 물결을 따라 무작정 도시로 몰려드는 젊은 여성들로 인해 사창가가 번창했고 남자들은 주저함이 없이 그런 곳을 드나들었다.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하층민 여자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위 "Grisette"의 시대였다.

피카소가 사춘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낸 스페인에서는 "Perfect Sunday for the Spaniard is mass in the morning, bullfight in the afternoon, and brothel in the evening"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피카소의 연인들이 바뀔 때마다 그의 화풍이 Blue Period에서 Rose Period로, 입체파에서 신고전파로 바뀐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영감을 준 뮤즈의 역할을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첫 번째 연인 Ferdinand Olivier를 만나기 전의 그의 그림 시기는 "Blue Period"라 불린다.



고독과 슬픔이 깃든 청색은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버림을 받고 권총 자살을 한 그의 절친 Casagemas를 애도했던 색깔이다. (La Vie, Burial of 카사헤마)

그러나 페르디낭을 만난 후부터 그의 그림은 음울한 청색을 벗어나 따듯한 핑크 색으로 바뀐다. 페르디낭으로 인해 Rose Period가 시작된 것이다. (Circus Family, Woman with crow)

페르디낭은 남편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와 모델 겸 몸을 파는 그



Picasso and his Muses

김명원(68, 남가주)

리제트였다.

비를 피해 피카소의 아파트 추녀 밑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피카소가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고 한다.

18세의 피카소가 처음 파리에 발을 디뎠을 때 그에게는 이미 "Little Goya (고야: 18세기 스페인 낭만파의 거장)"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미술의 천재였다.

세기말의 불안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럽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Belle Epoch'를 맞이했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재 화가로서 새롭고 혁신적인 미술을 개척해 낼 야심과 사명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교회와 왕권에서의 해방과 함께 구세대의 체제가 붕괴되던 시절에 그의 반항적 보헤미안 기질은 그를 부패한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 창녀, 광대 등 무산계급의 편에 서게 했다

청색 시대나 초기 장미 시대 때만 해도 그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찾는 전통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웃음을 파는, 그래서 웃음이 소진된 광대의 가족,

가난한 연인들, 눈먼 걸인 등을 그린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 대한 피카소의 연민이 가슴을 멍하게 때린다. 그러나 그가 26세 되던 해에 피카소는 '아비뇰의 여인들'로 세상을 놀라게 한다. '아비뇰의 여인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해괴 망측한 돌발 사건이었다.

나중에 그와 함께 입체파를 선보였던 George Braque까지도 '마치 석유를 마신 기분'이라며 혹평했다. 하도 평이 나빠서 화실 구석에 처박혀있다가 18년 후에나 다시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美의 개념에의 정면 도전이었던 것이다.

아비뇰이라는 도시는 창녀들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다.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은 '아비뇰의 창녀들' 이었다 한다.

왜 하필 이 시기에 피카소는 뜬금없이 이런 그림을 내어 놓았을까?

동갑내기 페르디낭과 동거한 지 3년 만에 완성된 그림이다. 그가 당시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으나 아마도 그와 동고동락하던 초년기 반려자로서의 페르디낭의 숨은 덕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피카소는 그녀를 데리고 고국 스페인을 방문하여 마치 금의환향이라도 한 듯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해 보였다. 피카소의 성년식 퍼레이드인 셈이었다.

다른 화가들에게는 절대로 모델을 서지 못하게 했고 집안의 곳은 일들은 일체 자기가 도맡아 하며 그녀를 여왕처럼 받들어 모셨다.

고양이를 두 팔로 안고 문간에 서서 자기를 맞아 주던 피카소의 모습에 반했던 페르디낭은 방향하고 있던 피카소를 따듯하게 보듬어 줌으로써 그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든든한 뒷받침을 믿고 그는 그동안 가슴에 품고만 있었던 새로운 미술을 세상에 선보일 용기가 생기게 아닐까? 그렇다면 페르디낭은 피카소의 첫 번째 뮤즈인 셈이다.

피카소는 르네상스 때부터 이어 온 미술의 전통을 깨어 부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때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가 알려졌고 Freud가 무의식 존재를 밝혀 냄으로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There is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라는 반신반의적 사조와 함께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화두가 초미의 관심사인 시대였다.

피카소는 사물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One Point Perspective를 뛰어넘어 Multipoint Perspective로 여러 각도에서 세상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다각적 관점에서 진실로 수렴하여야지 단선적인 하나의 관점 만으로는 궁극적인 진실을 규명해 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대였던 것이다. 브라크와 함께 시작한 입체파 운동이 바로 이 작품의 뒤를 따른다.

그러나 페르디낭과의 관계는 그녀의 불륜으로 끝을 맺는다.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고 그런 시대였다. 피카소는 그녀의 불륜을 일러바친 여자와 이미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그가 36세 되던 해였다. 당시의 피카소와 같은 무산계급들은 비혼주의를 부르짖었었다. 결혼은 구세대 기득권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고 소설가 Alfonse Daudet(아를르의 연인)도 "Artist shouldn't marry!"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차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피카소는 작곡가 에릭 사티, 시인 장 콕토, 평론가이며 시인인 아폴리네르 등 사회 저명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보헤미안 스타일의 누더기를 벗어 버리기 시작한다.

발레리나이면서 품위 있고 교육받은 러시아 대령의 딸 Olga Khokhlova와 결혼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상류사회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가 배척해 오던 상류층 부르주아 세계에 물들어서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화풍도 고전주의 스타일로 바뀐다.

'Olga in Armchair', 루블 박물관 측에서 모나리자가 있었던 자리에 걸어 준 'Portrait of Jacinto Salvador' 등은 우



리의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 고전파 그림이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전적으로 올라가는 뮤즈에 의한 예술적 영감 말고도 피카소의 눈치 빠른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올라와 함께 굴러 들어온 부유한 상류층 고객들의 취향이 전통적인 고전주의적 미술이라는 것을 영악스런 피카소가 모를 리 없었을 테니까.

피카소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었던 그의 어머니가 "You are not gonna be

happy with her because you've been married to art."이라고 예언한 대로 피카소는 체질적으로 올라와 궁합이 잘 안 맞았다.

누더기는 바꾸어 입었어도 핏 속에 흐르는 보헤미안 기질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28세 연하인 Marie Therese Walter와의 밀애를 시작한다. 그녀는 생기 발달한 금발의 육체파였다. 이때가 피카소가 가장 선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쏟아 낸 시기여서 이 시기를 "Curvism Period"라 부를 정도다.

각지고 직선적이던 입체파 그림이 풍만한 여체의 곡선으로 바뀐 것이다. 남성의 심벌을 코에 붙인 조각이나 망측해서 보기에 민망한 초상화는 모두 그녀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Bust of a Woman, Dream)



이 시기야말로 피카소가 왜 "Sex and art are the same thing"이라는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기다.

45세의 카사노바가 순진한 17살짜리를 품에 안았으니 이야기는 안 보아도 비디오가 아닌가.

피카소는 자신의 명성과 카리스마로 그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압했다. 마리는 피카소가 다른 여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을 때에도 그의 뒷전에서 분부만을 기다리는 기쁨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화를 소재로 그린 포르노 같은 관화들은 알파카게 포장된 자신의 능욕적 욕심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Painting is a lie that tells you the truth" "그림은 진실을 보여주는 거짓말이다"라고 실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다.

마야라는 딸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피카소가 죽은 지 4년 뒤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입체파 운동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피카소는 조강지처 올라가 건재하고 숨겨놓은 여자까지 있었으면서도 56세 때에 30세의 Dora Maar에게 매료된다. 항상 검정 옷만 입으며 '무의식의식 보다 더 정직하다'는 믿음에 동조하는 반 이성주의자였다.

도라는 이미 화단에 잘 알려진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겸, 미술 평론가이자 시인이었다. 피카소에게 사진술과 관화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초현실주의 개념도 소개해 주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보헤미안 게임(칼로 손가락 사이를 찌는 게임)으로 피투성이가 된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피카소에게 보여 주기도 한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피카소의 걸작 'Guernica'의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주며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공공연한 뮤즈의 역할을 수행 한 것이었다.

때마침 스페인 전쟁 발발과 함께 2차 대전의 전운이 짙어질 시기에 과격한 성격의 도라와의 만남은 피카소로 하여금 'Weeping Woman', 'Woman with Cockerel' 같은 난폭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게 했다.

그는 또 전쟁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구하기 힘든 화구 대신에 손쉽게 (다음면에 계



속) <전면에서 계속> 눈에 띄는 폐품들을 이용해서 'Bull', 'Baboon and the Young' 같은 기발한 조각 작품들을 만들어 내어 놓았다.

어린이들의 Make-believe Game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 시킨 것이다. "I am out to fool the mind rather than the eye" 전통 미술처럼 눈속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의 기존 관념 자체를 뒤집어 버린 전위 미술가로서의 당당한 선언이었다.

한편 피카소의 기쁨조 마리에게 이미 머리카락을 깎는 수모까지 당한 마당에 그의 다음 타자 Francoise Gilot 까지 나타나자 도라는 완전히 돌아버려서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피카소를 처음 만났을 당시 21세였던 프랑스와는 케임브리지와 솔본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최고 지성의 미술 학도였다.

자신의 저서 'Life with Picasso' 는 65 세의 피카소가 자신을 꼬시는 장면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시작한다.

그가 느닷없이 자기에게 첫 키스를 했을 때 이를 덤덤히 받아 주자 피카소가 놀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놀라야 되는 건가요?"라고 당돌한 대답을 해서 기선을 제압 당한 피카소는 그 후로도 프랑스와를 우습게 대하지 못했다.

"There are only two types of women: goddesses and doormats." 라고 고백했듯이 프랑스와는 그에게 여신이었다.

피카소는 그녀가 자신의 라이벌인 Matisse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아챈 후 부터는 마티스의 근황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둘이서 마티스를 자주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둘 사이에는 마티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경쟁적 팽팽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와의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피카소가 감탄한 마티스의 걸작 'Joy of Life'를 패러디한 그의 대작도 프랑스와의 행복한 시절이 주제였다. (Joie de Vivre)

그녀는 피카소의 아이를 돌보거나 낳았으면서도 피카소가 72세 되던 해에 그를 떠난다. 한심한 영감이 그때까지도 마리, 도라와의 치정관계를 매듭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카소는 난생 처음으로 여자에게 차인 것만 해도 돌아버릴 지경인데 자기의 떳떳지 못한 사생활까지 까발린 그녀의 책 "피카소와의 삶"이 출판되자 완전히 뚜껑이 벗겨져 자신의 치사한 본성을 드러낸다. 화상들이 프랑스와의 그림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가 하면 평론가들에게도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쓰게 종용하는 등 프랑스와 죽이기 공작을 벌이지만 그녀는 후에 프랑스 국가에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도 받고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미국인 Jonas Salk 박사와 결혼한다.



그 와중에도 피카소는 프랑스와의 친구 Genevieve Laporte, 약혼자가 있는 Sylvette David 등을 어떻게 해 보려다가 실패하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될 Jacqueline Roque를 만난다.

재클린은 프랑스 남부의 도자기를 만드는 Vallauris라는 별 볼일 없는 마을의 도자기 공방 점원이었다.

피카소가 휴가를 이용해 그곳에서 심

심풀이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도자기들은 어느새 그의 손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예술 형태로 각광을 받게 된다.

발로리스는 단박에 관광객으로 붐비는 예술 도시로 탈바꿈한다.

그의 끈질긴 구애 작전 끝에 마침내 굴복한 재클린과 화촉을 밝힌 것은 피카소의 나이 80, 그녀가 34세였을 때였다.

주책이라는 등 뻔뻔스럽다는 등 말들이 많았지만 피카소가 누구인가. 미스터 아비뇽, 인습 타파의 기수가 아닌가.

세간의 입방아찜에 외눈 하나 꿈쩍할 위인이 아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Learn the rules like a pro, so you can break them like an artist!"라고 큰소리친 것도 피카소가 아닌가. 아무튼 재클린 이후론 더 이상 염문은 없었다.

그녀의 철통같은 감시로 아무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피카소를 만나 볼 수가 없게 했다. 피카소의 아내이자 관리인으로서 그의 건강에서부터 집 안팎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관리하여 그가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피카소는 그의 연인들 중에 재클린의 초상화를 제일 많이 그렸다.



그녀의 개성 있는 미모에 흠뻑 반해서 '전생에 틀림없이 대가들의 모델이었을 거'라며, 재클린을 모델로 많은 왕년의 대가들의 작품을 패러디 했다. (Women of Algiers by Delacroix, Le Dejeuner sur L'herbe by Manet)

스캔들로 점철되었던 말 많은 피카소의 인생 드라마는 1973년 그의 나이 91세로 막을 내린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사그라들이 없이 그의 창작 의욕을 몽땅 불태울 수 있게 영감을 불어 넣어 준 것은 재클린이었다.

성실하고 순종적인 재클린은 피카소의 마지막 뮤즈로서의 임무를 다 했을 뿐 아니라 피카소 사후의 유산상속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녀의 나이 59세에 권총 자살을 한다.

피카소의 X-연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알려지지 않은 피카소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까지 찾아내어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가 죽기 한 해 전에 그린 자화상에는 마치 자신의 정신줄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 같은 모습을 그려 놓았다.

한 쪽의 뇌는 뭉그러져 없어지고 광대뼈는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뇌가 녹아내려서 동공이 짝짝이로 풀어져 버렸다.

"God is really only another artist. He invented the giraffe, the elephant and the cat. He has no real style. He just goes on trying other things"

피카소는 한 가지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해 나갔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판화, 도자기 등 어떠한 소재든 피카소를 거치면 그의 손은 마치 신의 손인 양 든든 보도 못하던 걸작들을 빚어내었다.

그러나 자신을 신에 비견할 만큼 자신만만하던 피카소였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몽크의 'The screamer'보다 더한 공포감을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 안

서 윤 석(68, 버지니아)

느린 걸음으로 이안은
바다를 물고 육지로 올라왔다

아메리카 독수리마저 높은 나무에서 날개를 접고
예쁜 꽃새들이 재잘거리는 동산에
그는 하마같은 입으로 핵폭탄을 뿜었다
짙은 안개 속, 비바람과 구름을 휘휘 돌리면서
노아의 홍수를
히로시마, 나가사키 폐허의 들판을 주고 갔다

매연가스과 플라스틱 봉지를 삼켜
불룩한 배를 내밀면서
오렌지 향기에 취했는지
빠른 부채춤으로 버티던 야자수를 뽑고
콘크리트로 솟아있던 건물을 부시고
하얀 선박들의 줄을 끊어 날리고 포효咆哮했다
커다란 독사와 악어마저도 삼키고
반도의 허리를 조이고 돌리면서 북동쪽 바다와 대륙으로 퇴장했다

진해지는 자외선으로 서서히 병들어가는 기상청氣象廳은
북극과 남극을 해매면서
더럽혀진 오대양을 마시던
그의 하얀 눈을 탐지하고 보도했다

이안이 하늘에서 외친다
'암흑 속에서 살아갈 너희들, 원시인들의 짐이 참 무겁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 한글작품은 미주 한국일보에 발표되었고 한, 영 작품은 詩文學에 보내졌음



IAN

Seo, Youn Seok

In slow motion,
IAN moved the Sea into the land.

In the peaceful garden,
Where the American eagle folded his wings
And the pretty birds sang in the field of flowers,
His hippo-like mouth pumped out nuclear bombs.
In the dense fog, he brought the nasty rain, wind, and clouds
Creating the Flood of Noah,
The ruined ground of Hiroshima and Nagasaki.

He stuck out his big belly, filled with toxic gas,
And plastic bags that he swallowed.
In the drunken mood, drawn to the orange-scent
He pulled out the palm trees which held the ground tight
by those fast fan motions.
He destroyed the high concrete buildings,
And cut off the connecting wire of the ships and threw them away
And then he screamed.

He swallowed the long snakes and the big alligators,
He squeezed and twisted the middle of the peninsula,
Before he retreated to the eastern ocean and continent.

The weather-controlled center, which received
More ultraviolet light and was ill
Reported the position of IAN's central eye,
While he wandered between North and South-pole,
Drinking the contaminated ocean water.

IAN yelled from the sky
"In the darkness, you folks are sent back to the beginning of time,
And now you will suffer the heavy burdens of the ancient world."
We all kneeled and prayed.



임진전쟁

은 기 철(71, 남가주)

4. 조선군제와 이순신의 전쟁준비

조선군제

조선은 일반병 정병과 직업군인 오위 가 육군이었고 오늘날 해군에 해당하는 수군이 있었다. 직업군인 즉 풀타임 군인은 극히 소수였다. 궁과 지방 성을 경비하는 병력 정도였다. 대부분의 병력은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짬짬이 훈련을 받으면서 복무하는 형식으로 채워졌다. 그나마 세금(군포)을 내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었다. 왜구나 여진족 등의 침입이 잦은 곳에는 다른 지방에서 거두어들이 세금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고 젊은이들을 고용하여 군대를 유지했다. 왕궁의 경비와 한양의 방위는 오위 즉 직업군인이 맡았는데 총병력이 약 8,000명에 불과했다.

외침시 전략: 제승방략제

조선은 외적이 침입할 경우에 가까운 곳에 각 고을에서 파견된 병력이 모이고 이 병력의 지휘관을 한양에서 파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한 번도 훈련을 같이 해보지 않은 장군의 지휘를 받아야 해야 했다. 또한 한양에서 현까지 지휘관이 도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연히 진격하는 적군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

조선수군

도로가 열악했던 조선은 바닷길이 중요한 운반 수단이었다. 나라의 세금을 쌀로 거두어 들여야 했고 배에 실어서 한양으로 운반되었다.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수군을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육군에 비해서 수군은 제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군은 힘들고 위험했기 때문에 군포를 납부하고 근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원 확보가 힘들었다. 조정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수군을 모집했으나 항상 인원이 부족했다. 급기야는 죄인을 수군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이순신의 전쟁 준비

이순신은 천성이 저돌적이었다. 소년 시절에는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동네 어른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8세에 무과에 응시했으나 시험도 중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낙방하고 말았다. 1576년 32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과거 급제 후 충청남도 서산, 해미에서 훈련원 봉사로 근무하는 동안 병조정랑 서익이 자신의 친구를 훈련원 참군으로 기용해 달라는 청탁을 거절했다. 겨우 10개월 만에 전라도 발포의 수만군호로 전근되었다. 새 임지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상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579년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병조판서 김귀영은 이순신을 친히 불러 자신의 서녀를 첩으로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이를 일언지하 거절했다. 현실에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순신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하게 된다.

이순신의 첫번째 백의종군

결국 1587년 한경도 국경지대로 좌천되어 여진족에 대한 국경 방어와 둔전 관

리 임무를 맡게 되었다. 둔전은 변경 지역이나 군사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이다. 두만강 하구에 녹둔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땅이 비옥하여 조선 정부는 이곳에 둔전을 두어 여진족 방어 병력의 군량미로 사용했다.

그해 가을은 풍년이였다. 9월 1일 이순신은 경흥 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했다. 여진족은 미리 숨어 있다가 비어 있는 병영을 급습했다. 조선군 11명이 전사하고 160명이 포로가 되었으나 이순신과 이경록은 반격하여 여진족을 격퇴했다.

이순신의 상관은 북병사 이일이였다. 이일은 여진족이 쳐들어 오자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다. 그는 본영에 충분한 수비 병력을 남기지 않고 추수하러 보낸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이일은 이 책임을 이순신과 이경록에게 떠넘겼다. 이일은 이 두 사람을 처형해야 한다고 장계를 올렸으나 선조는 이일이 이들을 모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백의종군을 명했다.

*백의종군은 장군이 졸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급은 유지하되 보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1588년 이순신은 2차 녹둔도 전투에서 여진족 장수 우물기내를 생포하여 복직되었다.

이순신 전라 좌수사로 임명

1589년에 유성룡의 추천으로 정읍 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선조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1591년 2월 유성룡은 전쟁 대비의 일환으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추천하였고 선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전쟁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군 정비에 나섰다. 관할 구역을 수시로 순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잡았다. 군기를 잡기 위해서 말 안 듣는 백성과 부하장병을 가차 없이 처벌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활쏘기를 연마했다. 그의 명중률은 82%로 현재의 궁도협회 8단에 해당했다.

1592년 4월 12일 이순신은 태종 때 위협용으로 만들어 놓은 귀선(거북선)을 개량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쟁 발발 하루 전이었다.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차이

일본 군함은 근본적으로 해적이었던 왜구가 해적질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구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작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적군의 배에 밀착한 후 뛰어들어 백병전을 하기에 편리했다. 함포는 빈약했고 주로 조총으로 무장했다. 따라서 적의 배에 가까이 접근해야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조선 함대는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북선은 몇 척 되지 않았고 주로 판옥선이었다.

둘 다 이층 배였다. 판옥선 아래층은 노 젓는 사람이 110명이, 이층에는 함포가 있었고 54명의 수군은 주로 포병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수군은 이미 왜구가 뛰어들어 백병전을 하기 힘든 구조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 군함의 함포는 사정거리가 1000미터였지만 과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쏘는 대포의 명중률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순신은 여러 번 실험 끝에 200미터 정도 접근하면 적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 수군은 배 안에서 적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조선 수군은 거북선을 적진 깊숙이 진격 시켜 일본 수군의 장군 배를 함포 사격으로 침몰 시킨 다음 판옥선이 돌격하는 작전을 썼다.

조선 수군은 화력과 배의 구조 면에서 일본 수군을 압도했다. 거기다 이순신 같은 지휘관이 있었으니 시작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

5. 일본 조선 침략 개시

이일과 신립의 어이 없는 패배



중앙일보: 부산진 순절도, 육군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가 떠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인 1591년 9월, 도요토미는 전국 다이묘(성주)들에게 조선 침략을 통보했다. 그의 궁극적인 야망은 명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도요토미는 가토 기요마사(가토정정)에게 나고야에 전진기지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나고야는 규슈 북단에 위치해 있어서 조선과 매우 가까웠다. 1591년 10월이었다. 도요토미는 가토에게 명을 정벌하면 20개 주를 하사할 것을 약속했다. 사기가 충천한 가토는 단 2개월 만에 나고야 성을 완공했다. 이곳에 약 17만 대군을 대기 시켰다.

조선 출정 장수들은 일본 서남부 지역 다이묘들이었다. 도요토미처럼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도요토미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해서 믿을만했다. 반 도쿠가와와 이에야스(떡천가강) 세력이다. 도쿠가와와 막부시대 200여 년 동안 푸대접 받다가 명치유신 세력으로 살아나서 요즘 일본 우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단한 전통이다.

도요토미의 오산

대규모의 원정은 항상 보급이 문제이다. 그 옛날에는 보급을 현지 조달로 해결하려 했다. 일본 내의 전쟁에서는 다이묘(번주=영주)만 굴복 시키면 번(영내)의 백성들이 모두 복종했다. 그들은 조선에서도 성을 점령하면 성내의 백성들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 저항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군이 남해-서해-한강을 거쳐 한양에 도착하여 육로로 올라온 지상군과 합류하여 병력 손실을 메꾸고 군량미 등 부족한 보급을 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강력한 조선 수군과 이순신이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침공 시작

1592년 음력 4월 13일(5.23)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는 700척의 배에 18,700명의 병사를 싣고 부산진으로 들어왔다. 고니시의 1군은 부산진에 상륙, 동래를 함락했다. 곧바로 조령으로 북진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가토 기요마사는 2군을 끌고 죽령으로 향했다. 4군과 같이 김해에 상륙한 3군 구로다가 마사는 추풍령으로 진격했다.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을 비껴 가고 있었다.

한양에서는 침공 소식을

4일 동안 모르고 있었다.

부산포, 동래, 김해가 별 저항 없이 일본군 손에 넘어가고 일본군이 북상하고 있는 동안 선조와 조정은 깜깜무소식이였다. 봉화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장계를 가지고 말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다. 4월 13일에 출발해서 17일

에야 조정에 장계를 전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신들은 선조를 알현하여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웬일인지 선조는 대신들을 직접 만날 것을 거부했다. 할 수 없이 서면으로 대책을 임금에게 알리고 그대로 시행했다. 일본군은 거의 구보하는 속도로 한양을 향해 북상했다. 조선군의 저항은 지극히 미미했다.

순변사 이일

충주-조령-상주-대구로 출정

조선 제2의 명장이라고 소문난 이일을 순변사로 임명했다. 이일은 일본제1군 고니시와 싸우기 위해서 충주-조령-상주를 거쳐 대구에서 일본군과 대적할 예정이었다. 대구에서는 각 지방에서 모여든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일은 왕이 임명한 이들의 지휘관이였다.

순변사는 왕이 때때로 임명하여 변방의 방비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관직이었다. 이일 휘하에 군사가 없었다. 모병을 해야 했다. 소식을 듣고 약 300명이 모였다. 군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었다. 유생과 아전들은 갓 쓰고 손에는 종이를 맡아서 들고 나왔다. 겨우 60명 뽑았다. 이일은 이들을 인솔하여 먼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별장 유육이 군사가 모집되는 대로 내려오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병사들이 기다리고 일본군은 대구를 향해서 쳐들어 오고 있었다. 벌써 3일을 허비했다.

제승방략과 대구



blog.naver; 신징비록

각 고을에서 병사들이 대구로 모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일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적군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병사들에게 퍼져 갔다. 군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농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식량은 점차 떨어져 갔다. 거기다 비까지 내렸다. 지휘관이 없는 이들은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나씩 돌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성이 텅 비었다. 일본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구를 점령했다. 제승방략은 전전전무용한 제도였다.

이일 상주에서 패주

상주 목사였던 김해는 이일을 마중 나간다고 하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성안에 있던 병사들도 모두 도망가 버렸다. 그래도 관관 권길이가 남아 있다가 이일을 맞이했다. 이일은 권길을 기특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목을 베려고 했다. 권길은 병사들을 모집해 오겠다고 애걸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가 모집해온 사람들은 순박한 농사꾼들이었다. 한마을 사람이 이일에게 적군이 이미 근처에 와 있다고 알려 주었다. 실제로 적군은 근처 산에 와 있었다. 이일은 병사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목을 베려고 했다. 마을 사람은 "옥에 가두었다가 내일 아침까지 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이십시오"라고 해서 우선 위기는 모면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이일은 적이 접근하는 것을 몰랐다. 그 촌부의 목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일에게는 한양에서 데리고 온 병력과 현지 조달한 병사들을 모두 합쳐서 약 8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을 비우고 전 병력을 성 밖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진치는 훈련을 시행했다.

장군기를 높이 세우고 자신은 말위에 올라탔다. 그의 뒤에는 음 관리 4명이 말에서 내려서 서 있었다. 정렬해 있던 병사들은 일본 척후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이일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리면 목을 <다음면에 계속>

Summer Dream, of an Old Surgeon

: For my four grandchildren

"The old heart surgeon always tells a true story from his own experience."

Choh, Joong Haeng (69, IL)

When I woke up, it was still dark with a touch of pale light in the lower sky in the east, over the dark silhouettes of my oak trees in the front yard. A few minutes later, the sun light came all of a sudden. It is going to be another beautiful, perfect summer day in Midwest, USA.

I am a retired heart surgeon, kind of old aged. I like to tell stories of the old days to my children, usually truth, occasional lies one time or another.

This morning, I'm gonna take my usual morning walk to the LeRoy Oakes Park East, St. Charles, Illinois, close to my home and I am actually supposed to meet Tom Sawyer and Huckleberry Finn at the bridge over Ferson Creek and fish together. Becky Thatcher won't be there, she'd never sacrifice her beauty sleep in the early morning and fishing on the bridge is always only for the bo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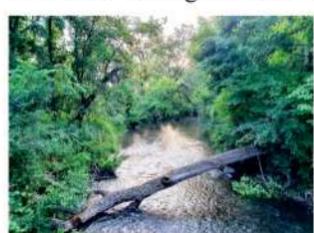
Ferson creek flows slowly through the woods beyond my back yard and one mile east of my place, joins the Fox River in Kane County, Il, which then runs southward between nameless woods of the prairie and eventually somewhere a few hundred miles south-west, near the Iowa & Missouri border, where she will join the magnificent Mississippi River.

The Fox River in downtown St.Charles, my neighbourhood, is 100.06 meter wide, to be exact, according to Google Map measurements and I always, almost always, tell the truth. If you believe in the old tales of the southern states, it is the kind of "Warm River", as in the poetic short story of Erskine Caldwell or other tales of W. Faulkner --"warm even in winter, when there is ice and snow underfoot".

After 10 minutes' walk, as I got close to the bridge, --from the woods I heard two boys chatting, "Doc is late this morning, I think he is getting old?"

"I am almost there, boys. I had an emergency case last night, a triple coronary bypass, it was a real life saver!" I shouted.

When I arrived, Huck was already throwing his hook into the water and Tom was baiting his hook with a grasshopper from the bottle on his neck.



Now he works on his rod and spits on the river for good luck.

Sky is clear blue and between the trees, gentle breeze sings easy on and off.

"Guys, I have a new kind of bait this morning. Couple of pieces of saphenous vein left over from yesterday's bypass surgery. Best kind of baits. Top secret!?" Judge

Thatcher finds out, he will put me into jail and I will never be able to fish again."

Their eyes glowed. Huck asked "Are these genuine pieces from a real patient? Can you share a piece with me this morning, Doc?"

I said "If you guys pay me with one Bit Coin the Judge invested for your trust, I will let you use my veins today. I heard you guys made fortune from the new kind of coin the Judge Thatcher invested from your treasures from the cave."

I took out my surgical scalpel, cut the vein into several pieces and we were busy baiting our hooks. Now, with the blessing of the Lord,(Mathew 4:19) three disciples are all ready for a long day's happy fishing. Maybe some bluegill and catfish could be grilled to perfection for our lunch later. With the soy sauce and Gochoojang(red-pepper paste) I brought, it is going to be a fantastic outdoor lunch this afternoon.



Suddenly, my cell phone rang. It is from my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with a soaring soprano voice. "Where are you? Did you know you have the appointment with your cardiologist this morning for Blood Pressure pills and another appointment to follow with the urologist for the Prostate problem? Yobo, Bbally, Bbally Jibbae Wa!?Come home quick!"

"Oh! It sucks!" I said. "Doc. Don't forget to see Dr. Al. Alzheimer at the corner of Crane Road & the 3rd street. I heard he is very good at fixing old people with forgetfulness." Tom Sawyer jeered at me.

As I awake from this summer dream, the woods are still lovely and the river runs warm as usual, in the summer of 2022.

And--the old heart surgeon always tells a true story from his own experience.

--written by Grandpa for my grandchildren, Thomas, Amanda, Abigail & Chloe after reading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for them, during their visit in August 2022--

잊혀지지 않는 얼굴



이덕승(60, 남가주)

초가를 날씨답지 않게 소낙비가 억수 같이 퍼붓던 무더운 날이었다. 1950년 9월 27일 오후, 진 흙탕물에 뒤범벅이 된 인민군이 두 손으로 받쳐 든 파발총의 총구가 나를 향해 겨냥되었었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인민군은 양 눈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눌러쓴 군모에 쏟아지는 빗발과 땀으로 얼룩진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던 그 순간의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악의에 찬 패잔병 답지 않게 어딘가 순진한 면이 엿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인민군 점령하에서 강제로 차출된 의용군으로 동료들로부터 이탈된 낙오병 같아 보였다. 16-7세의 어린 소년의 옛날 얼굴! 지금도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그 당시 내 나이가 16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남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피신을 못한 공직자들은 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처형되었고 우리 가족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힌 몸이었기에 만약 그들에게 발각이 되는 날이면 가차 없이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지였다. '인민보육대'란 빨간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정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네 주변에서 나보다 어리게 보이는 학생들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본 나는 그날부터 골방에 갇힌 몸이 되었다. 골방이란 천장 위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캄캄했으며 무더운 날씨의 열기로 한증막 못지않게 확확 달아올라 비 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면서 하루 24시간을 지나려니 그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처참했다. 게다가 식량도 바닥이 나고 보니 영양실조로 인해 내 몸은 부어오르고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색되었다. 불안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이란 소형 트랜지스터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승전 소식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자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어서 속히 저희들을 이 고통 속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드디어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국군의 총반격이 시작되면서 연달아 터져 나오는 박격포 포탄이 패잔병들의 길목을 강타했다. 불행히도 우리 집이 인민군들이 도주하는 길목의 하나인 돈암동에 있었던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포탄 세례도 더해졌다. 수도 서울의 탈환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점차 거센 빗발이 골방 지붕 위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매 분마다 '-팡' '-팡' 천지를 진동시키는 폭음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다 가깝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몸은 마치 말

라리아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은 주님을 찾는 길이었다.

"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비 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쉼 새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나는 엎드려 큰 소리로 주님만을 불렀다. 이때였다. '콰앙!' 골방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심한 진동에 나는 벌떡 일어나 골방에서 후다닥 뛰어내려 부엌 문을 박차고 뒷마당으로 뛰쳐나갔다. 폭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요란했던지 우리 집이 포탄에 명중된 것 같았고 짐채가 통째로 주저앉는 느낌이어서 골방에 있다가는 내 몸이 박살 날 것만 같았다. 밖에는 소낙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이 빗줄기에 씻기니 우선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 "동무, 손들어!" 하는 소리에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5-6 미터 정도 떨어진 집 뒷골목 길로 도망치듯 지나가던 인민군이 나를 보자마자 파발총을 겨누며 내뱉은 말이였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쌓아올린 돌담이 포탄의 여파로 무너져 내려 내 정체가 드러났던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높이 지켜둔 두 손과 힘없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가 마구 떨리면서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딱딱딱 부딪치는 차아 소리와 콩 뿜듯 날뛰는 심장 박동소리 외엔 들리는 것이 없었다. 그래도 두 눈은 살아 있어서 방아쇠 고리 안에 있는 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동무는 뭐얏! 왜 거기 서 있어!" 총부리를 아래 위로 움직여 가며 다그쳐 묻는 말에 나는 부동자세 그 자체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를 죽일 인민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신뢰감이 언뜻 내 머릿속을 스쳐가긴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지속되었다. "저어, 전... 포... 포탄이 우리 집에 떨어진 줄 알고 거... 겁이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빗방울에 섞여 그의 귀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고양이 앞의 쥐' 격으로 겁이 질려 떨고 있는 처절한 내 모습이 적군이 아님을 인지하였는지 나를 겨누었던 총부리를 돌려 집 쪽을 가리키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내 앞에서 급히 사라졌다.

'아-! 난 살았구나!' 안도의 큰 숨을 내쉬 새도 없이 나는 재빨리 골방으로 되돌아왔다. 제멋대로 마구 뛰놀던 내 심장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가는 객이 되었다. 나는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인민군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푹푹히 보았습니다. 파발총 방아쇠를 잡아당길 듯했던 그 손가락의 힘을 빼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줄기의 감격 어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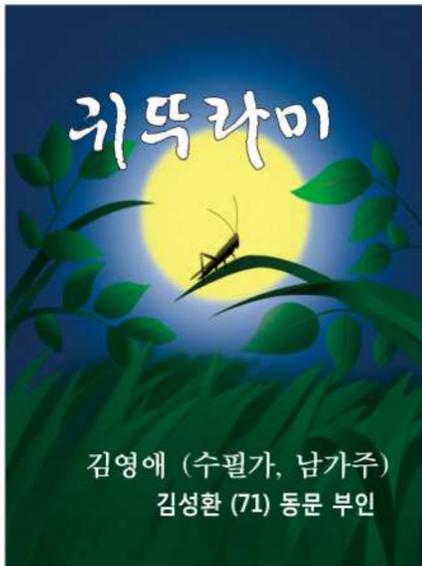
그러나 달천 평야는 논이 많았고 비가 많이 와서 말이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총부대와 기마병의 대결이었다. 100여 년의 전쟁으로 단련된 병사들과 농민군의 싸움이었다. 일본군의 승리로 끝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신립과 김여울은 탄금대 뒤 남한강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이일과 신립의 패배 소식을 들은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전면에서 계속>베어 죽일 것이 아닌가? 이일이 마상에서 성 쪽을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군관에게 무슨 일이 있는 지 알아 보라고 지시 했다. 군관 자신은 말에 타고 역졸 두 명이 고삐를 잡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군관이 갑자기 조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일본 병사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쳤다. 일본군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조선 병사들은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도망쳤

다. 이일은 옷을 입으면 표적이 될까 봐 발가벗은 채로 신립이 진을 치고 있는 충주 쪽으로 줄행랑을 쳤다. **신립장군과 탄금대 전투(4.28)** 신립은 조선 제일의 명장이었다. 그가 지휘하는 기마병을 철기군이라고 했다. 철기군은 만주 벌판에서 여진족을 섬멸했다. 기마병은 평지에서 싸워야 유리하다.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면 싸움 재간이 없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조총 대신 활로

싸워야 하는 조선군은 좁은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급습하는 것이 유리한 작전이었다. 부장 김여울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죽령(문경 새재)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기를 원했으나 신립은 이를 거절하고 달천 평야에 배수진을 치고 일본군과 한판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학자들은 훈련되지 않아서 겁에 질린 병사들을 싸우게 하려고 배수진을 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김영애 (수필가, 남가주)
김성환 (71) 동문 부인

어디선가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서 나는 소릴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신경을 모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냉장고 뒤편 어딘가가 진원지인 것 같다. 귀뚜라미가 동지를 튼 게다. 밤이 짙어지자 녀석은 어두운 구석에서 슬피 운다.

“귀뚜 귀뚜~링링... 귀뚜 귀뚜~링링...”

귀뚜라미 소리는 타일 바닥과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변하더니 부엌 안을 쉬지 않고 맴돌고 있다.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냉장고 문을 급히 열었다 닫아 보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밝은 불빛을 갑자기 벽 뒤로 비춰도 본다. 그리 요란을 떨어도 녀석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성기를 댔던 듯 녀석의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귀뚜라미는 양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는 곤충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른쪽 날개 안쪽의 굽은 줄 모양의 맥에 왼쪽 날개 바깥쪽의 마찰 판을 비벼 바이올린을 켜듯 소리를 만든다. 그 가운데 교활한 녀석은 자신의 소리가 크게 퍼지도록 날개를 펼치며 치켜세워 소리를 크게 확산시키기도 한다.

놈은 왜 매일 밤소리 공연을 펼치는 것일까? 잃어버린 짝을 찾기 위해서라면 굳이 아무도 없는 냉장고 뒤에 몸을 감추고 밤새도록 그리할 리는 없을 터, 분명 내가 알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을 듯싶다. 가을이 깊어가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힘겹던 순간을 되새기면서 안타까운 한을 터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밤새도록 오염하는 것인가. 낙엽 같은 자기 신세가 서글퍼 밤새도록 눈물짓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속마음을 마음껏 표출 못 하고 밤잠을 설치며 삶을 고뇌하고 울어본 적이 없는 나와 비교하면, 녀석은 훨씬 자유롭고 깊이 있는 생을 살고 있는 것도 같다.

귀뚜라미의 울음을 다르게 헤아려 보니, 녀석은 무심한 나에게 삶의 가을이 곧 다가올 것을 알리며 촌음의 시간을 절제 있게 보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귀뚜 귀뚜~링링... 귀뚜 귀뚜~링링”

밤마다 지속되는 녀석의 울음소리가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세뇌시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조금씩 귀뚜

라미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어쩐지 녀석과의 동류의식이 느껴진다.

땅 위에 사는 녀석은 갈색으로, 나무에서 생존하는 놈은 녹색으로 변하는 귀뚜라미는 주변의 빛과 온도에 따라 빛깔과 체온이 바뀐다고 한다. 그것은 아들에게는 당당한 어미로, 남편에게는 여린 삶의 동반자로 색깔을 바꾸며 상황에 따라 영혼의 온도까지도 변화시키는 내 처지와 닮은 구석이 많은 성싶다.

게다가 녀석이 실 모양의 두 더듬이로 주변을 살피듯, 나는 예민한 오감의 더듬이로 주위의 공기 흐름을 가늠하며 그것과 맞추며 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둡고 침침한 것을 좋아하는 녀석처럼 나도 햇빛 알레르기로 인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을 커튼으로 가리고 침침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며 싸울 때나 혹은 상대방을 유인할 때 그리고 먹이를 구할 때의 소리가 각기 다르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도 귀뚜라미처럼 순간의 감정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밤샘을 즐기는 녀석처럼, 나도 어떤 일에 몰입하면 밤이 깊어질수록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한다.

예부터 귀뚜라미는 아름다운 소리로 인기가 높고 애완용으로 여겨져서 정서 곤충(情緒昆蟲) 중에 으뜸으로 꼽혀 왔다. 그러기에 프랑스의 조스캥 데프레는 귀뚜라미 음악을 창작하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귀뚜라미가 두 날개를 비벼서 고운 소리를 만들듯, 나도 순한 영혼의 실을 한 가닥씩 뽑아 가로실과 세로실을 고르게 엮어 수필이라는 한 편의 삶의 직물을 짜내고 있다. 또 귀뚜라미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는 잡식성이듯, 내 글의 글감 역시 무엇이든 가능하다. 녀석이 날개를 비벼대어 나오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듯, 나도 영혼의 실로 짜낸 고유의 수필로 가깝거나 먼 곳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다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녀석은 청정한 가을밤을 찬미하다 거기에 취한 나머지 낭만적인 글귀들을 한 줄 한 줄 적어 풍요로운 가을 수필로 표현해 내고 있다.

“귀뚜~귀뚜 링링... 귀뚜~귀뚜 링링...”

동네 우거진 풀밭에서, 나무 밑 낙엽 사이에서 썩 내려가는 귀뚜라미의 수려한 문장들. 상처받기 쉬운 영혼처럼 쉽게 다칠 수 있는 녀석이기에 부드럽게 다루어야, 서정적이고 운치 있는 문장으로 곱고 특유한 수필을 지어 나갈 수 있으리라.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우느라 진지하게 삶을 사유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나, 언제 한 번 귀뚜라미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밤새워 인생을 고민하며 소리 내어 울어볼 날이 있을까. 싸해 가는 이 가을에는 세속적인 욕심과 쓸데없는 집착을 비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지고지순한 한 마리의 귀뚜라미로 태어났으면 하는 꿈을 꾸다.

명상에서 얻은 자유

주위가 고요하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맑을 것 같은 영혼은 세상의 미세먼지에 오염되었는지 선명하지가 않다.

시간이 지나자 혼의 탁한 기운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영혼은 썰물 끝에 남은 갯벌처럼, 세상에서 내쳐진 듯 초라해진 느낌이다. 어쩌면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 물결이 빠지며 자연스레 드러나는 나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아니, 성황리에 막을 내린 공연의 끝머리처럼 모두가 사라지고 화려했던 세상의 소리조차 자취를 감추며 생기는 적막 속의 고독일 것도 같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단전의 동굴에서부터 뿜어지는 들숨과 날숨으로 온몸이 편안해지자, 맑은 영혼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신비롭게 전개된다. 어깨에 얹힌 책임과 의무, 온갖 세상 시름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면서 무한한 시공 속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진다.

한편으로 헤아려보니 명상은 허공을 닮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한히 넓고 커서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허공. 명상을 통해 영혼을 허공같이 커다랗게 만들면, 삶에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듯도 싶다. 허공은 허허로워서 결코 다치거나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허공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새겨 넣을 수가 없다. 삶에서처럼 내 것과 내 것에 금을 그어 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와 나의 잘못도 새겨 넣지 못한다. 그리고 보면 명상은 영혼을 허허로운 허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면 삶도 허공을 닮아서인지 내 것이라는 집착이나 아집이 불가능할 듯싶다. 거대한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 한 모퉁이에서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을까. 우주의 큰 눈으로 살피면, 삶은 죽을힘을 다해 허공같이 비어진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듯도 하다. 사람들은 신기루 같고 허공 같은 삶을 움켜쥐려 애쓰지만, 떠날 때는 누구도 그 무엇도 손에 넣어 갈 수 없지 않은가. 명상은 우리를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도 같다.

하지만 반대의 눈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허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허공을 닮은 내 영혼도 나의 모두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는 극과 극을 이루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옥과 천국을 오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허허로운 명상도 삼라만상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곳에서는 온갖 파노라믹한 영혼의 세계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혼이 열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지면 그것은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경계

없이 넘나든다. 산이 되었다 물이 되고, 바다로 변했나 하면 하늘로 승천해 구름이 되었다 마침내는 지구를 휘돌아 광대한 우주로 변한다. 온갖 세상이 생겨났다 소멸되며, 무한한 영겁이 찰나로 돌변하는 명상의 세계. 작은 지구의 한구석에서 나는 모든 의식의 시작과 끝을 명상을 통해 창조하고 멸진시키고 있는 까닭이리라.

영혼이 맑은 빛으로 가득 찬 명상이 어지면, 혼은 싸한 민트 향을 주입시킨 듯 투명하게 맑아진다. 반복되는 단전 호흡으로 가슴이 청량한 기운으로 가득 차면, 혼은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듯 부드러워지다 우주와 하나를 이루며 무한대로 커지는가 싶더니 불현듯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해진다.

우리 인생은 부모가 지어준 몸을 빌려 쓰며 잠시 세상에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이다. 헤아려 보면 삶도 세상도 잠깐 빌려 쓰다 자연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문득 뒷마당으로 눈을 돌리자 장미와 보겐볼라가 명상에 잠긴 듯 온몸에 정(靜)을 이루며 침묵하고 있다. 세상이 구별해 놓은 잘난 꽃도 못난 꽃도 차별 없이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 예쁘고 밍다는 형상의 분별조차 무너진 것 같다. 돌아보면 세상이 만든 잘나고 못났다는 분별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은 얼마나 세간의 덧에 걸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을까. 명상을 통한 자연의 눈으로 보면 원래 분별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나누고 구별하며 세상의 온갖 번뇌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자연의 호흡과 맞추며 그것과 하나를 이루어 자연인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된 영혼은 어느 생명체와도 소통이 가능해질 듯싶다. 시공을 잊은 혼이 명상을 통해 우주를 윤회하며 찰나와 겁을 오가는 동안, 하염없는 평온함은 온몸 세포에 넘치는 희열로 퍼져 나간다.

생각해 보면 명상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관조할 수 있게 만들어, 생의 진한 통증까지도 슬기롭게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삶의 질통을 명상으로 승화시키고,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면 영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살아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식량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무한한 자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살아 있음에, 오감의 온갖 빛으로 삶의 수채화를 그릴 수 있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그 순간 천국을 맞볼 수 있는 것 같다. 천국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피어나는 순간마다 영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농담 골목

옷 벗어!

친구 1 : 몸이 안 좋아 병원엘 갔더니 여의사가 진찰을 하잖아.

친구 2 : 기분 찢어지게 좋았잖군.

친구 1 : 옷을 벗으라고 하잖아.

친구 2 : 그래서?

친구 1 : 당신부터 벗으라고 했지. (이덕송)

맛 실수

파티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척하고 여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아내인 줄 알고...”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사과할 것 없어요. 바로 저예요, 여보.” (이덕송)

술 취한 남자 친구는 부채이고 술 취한 여자 친구는 자산이다

지난 호에 실렸던 위 농담의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분들의 문의에 답해 드립니다. 먼저 부채란 남에게 빚을 지는 것으로 채무자는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래 효의(future benefits)이 감소됩니다. 반면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돈, 증권, 부동산 등)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으므로 미래 효

익을 얻게 됩니다.

이 농담은 남자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술 취한 남자 친구의 모든 뒤통수까지 리를 하게 될 경우 달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치 자신이 빚진 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 술 취한 여자 친구의 뒷 수습은 무슨 보물(자산?)이라도 챙취한 듯 기쁜 마음으로 신이 나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덕송)

The overtime

Last month I took a guided tour of New Mexico. After visiting a beautiful adobe church we were waiting for our bus under a large cottonwood tree, when I overheard a charming elderly lady's blaring statement;

“We are in the fourth quarter!”

I asked her, “What do you mean?”

“We are in the fourth quarter of the game, because I am seventy six years old and she is seventy four.” Her sister was sitting beside her smiling.

“Then, I am in the overtime because I am eighty eight.”

After a brief moment of silence she mumbled, “In the overtime the game usually ends with the sudden death.”

“Yeah. That's what happened to a couple of my friends this year.” - Eunsun Cho(61)



나한테는 연년생의 세 놈의 외손자가 있다. 현재 7, 8, 그리고 9살인데 이 세 놈의 성격, 취미, 재능, 놀이, 그리고 즐기는 음식과 옷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다르다. 이 중 가운데 놈인 대니엘은 그림 그리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고 동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네 살 때 벌써 그 어려운 다이노서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 판 놈들은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 이놈 만이 강아지 밥도 주고 데리고 논다. 집 뒤 너른 정원의 나무에 새 모이 줄을 달아놓아 온갖 새들이 몰려와서 모이를 즐기는데 그 많은 새들의 이름을 다 안다. 잘 때는 항상 천으로 만든 동물 인형을 끼고 자고 저 혼자 동물들과 대화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대니엘이 다섯 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사파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슬슬 사파리 여행을 구상하고 이곳저곳 알아보니 사파리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제한이 여행사마다 달랐는데 가장 어린 나이를 받는 여행사가 7세였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가기로 했는데 마침 코비드 사태가 터져서 2년여 여행이 중단되었다가 작년 후반부터 여행이 풀릴 조짐이 보여서 작년 7월 2022년 6월 중순(이때부터 여름 방학이 시작됨)부터 시작하는 열흘간의 탄자니아 사파리 여행을 예약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코비드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여 여행사에서 긴장하고 흑시의 사태를 걱정해 이미 예약한 손님들한테 여행 취소 가능성을 알리고 해약을 원하면 하라고 했지만 만일 해약하면 대니엘의 실망이 클 것 같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다려 보려고 하였다.

다행히 봄이 오면서 코비드도 한풀 꺾이고 여행이 정상으로 풀리기 시작하였다. 딸애가 지 아들 여행 준비하느라고 부산 떨며 벌레가 싫어하는 옷감으로 만든 옷과 망사 천을 드리운 특수 모자를 사면서 내 것도 장만해 줬다.

아프리카 여행하면 말라리아, yellow fever, typhoid fever, tsetse fly disease 등에 대한 예방으로 백신을 맞거나 예방약을 먹거나 해야 한다고 WHO나 CDC 가이드라인에 쓰여 있어 읽어보면 겁나서 아프리카 여행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나는 몇 년 전 에티오피아 여행 때의 경험을 되살려 아무 예방 조치도 안 했고 딸한테도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딸애가 이곳저곳을 알아보고는 최소한 말라리아 예방약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지 일주일에 한 알씩 먹는 예방약을 떠나기 2주 전부터 아침에 대니엘에게 먹이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투약 후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고열(40도)과 어지럼증, 두통이 생겨서 나한테 전화해서 흑시 예방약 부작용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길래 구글 선생한테 알아보니 별별 부작용이 다 많았다. 여하간 대니엘은 다음날 학교도 쉬어야 했다. 다행히 상기 증상들이 서서히 없어져서 내가 투약을 중지하고 그냥 여행 가자고 권유하여 내 말을 따르기는 했지만 한편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우여곡절 끝에 대니엘과 나 둘이서 6월 14일 JFK에서 새벽 1시에 떠나는 American airline의 Qatar의 Doha 행 비행기에 올랐다. 13시간 반 비행 후 Doha에 6월 15일 새벽 1시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조그만 사고가 났다. 비행 중 대니엘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지 않는가? 응급으로 휴지를 돌돌 말아 코에 쑤셔 넣어서 얼마 후 지혈은 됐지만 갑자기 나한테 이 여행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몰려왔다. 그동안 술한 여행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나뿐 아니고 8살짜리 사내애를 내 옆에 끼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긴장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밤새 잠도 변변치 못하게 자고 도하 공항에 내려보니 피로가 몰려온다.

공항은 현대식으로 아주 멋있게 지어져있고 공항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꼭두새벽부터 공항이 인파로 밀려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 공항이 중동과 아프리카 각지와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인 것 같았다.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 피부색, 체형, 얼굴 모양, 옷차림의 다양함이 흡사 세계 인종 전시장 같았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뉴욕커인 나에게도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그렇게 많은 아랍 사람을 처음 본 것이 더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 공항에서 거의 5시간 기다렸다가 탄자니아의 Arusha에 있는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가는 Qatar airline 비행기로 바뀌 탔는데 비행기의 시설, 청결, 승무원의 친절할 서비스는 세계 우수 항공사급으로 뉴욕에서 타고 온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왜 미국 항공사는 그 모양인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항상 느껴오는 것이다.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비행기는 5시간 반의 비행 끝에 마침내 아침 9시경에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공항은 탄자니아 사파리와 킬리만자로 산행의 시발점이 되는 공항이어서 비행기는 거의 여행객들로 차있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대니엘과 나는 좀 이색적인 조합이었다. 집을 떠난 후 27시간 만의 아주 긴 여행이었다. 공항에 내리니 조그만 시골 간이역 같은 초라한 공항이었고 걸어서 청사에 들어가니 입국 수속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로소 아프리카 빈민국에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별로 많지도 않은 여행객 수십 명 입국 수속하는데 거의 두 시간이 걸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우리 여행사 직원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 호텔까지 데려다줬다. 길은 포장되어 있었지만 왕복 일 차선에 트럭, 삼륜차와 오래된 차들이 뒤범벅이 되어 30여 킬로 운전해 한 시간이 걸렸다. 호텔은 넓은 정원과 시원한 로비 너머로 보이는 큰 수영장을 갖고 있는 현대식 건물로 가난이 짓누르는 바깥 동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아류샤는 인구가 50만이 채 안 되는 탄자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탄자니아 삼대 산업의 하나인 관광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크다.

우선 오후에 여행 총괄 가이드인 수잔을 만나서 우리 일행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10일간의 사파리 여행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일행 26명은 6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큰 가족이 9명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온 80대 초의 노부부가 두 딸 가족 7명(손녀 3명 포함)을 데리고 왔고 두 번째 큰 가족은 미쉬간에서 온 70대 말의 노부부와 그들의 두 딸과 손자 두 명으로 그리고 70대 말의 두 노부부가

각각 외손녀 한 명씩을 데리고 왔고 콜로라도에서 온 젊은 부부가 12살짜리 외아들을 데리고 왔고 우리 가족이 가장 적은 소 단위인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여행 그룹의 이름이 The grand family safari tour인 것을 감안하면 구성원의 면면이 이해가 간다.

이 호텔에서 2박할 예정이고 내일 첫 번째 사파리 여행은 Arusha National Park으로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Meru mountain (탄자니아에서 킬리만자로 산 다음으로 높은 4500m 정도의 산) 산자락에 있는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장 작은 국립공원이다. 아침 식사 후 일행이 다섯 대의 사파리 전용 차량(최대 8명까지 승선하고 차 지붕을 밀어 올리면 사람들이 서서 동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대니엘은 항상 자리 위에 올라서서 사파리를 즐겼다)으로 나누어 타고 한 시간여의 운전 끝에 공원에 도착하였다. 첫날은 콜로라도에서 온 젊은 가족과 같이 했는데 이 가족의 12세 아들이 얼마나 젊잖고 예의바른지 마음에 꼭 들었다. 이 가족은 여러 번의 wild life 탐사 여행을 해서인지 사파리 여행 경험이 없는 우리와는 달리 고성능 망원경, 망원렌즈가 부착된 디지털카메라 등 준비가 대단했다.

입구에서 수속이 끝난 후 운전수(가이드)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붕을 들어 올리니 (지붕은 항상 공원 안에서만 올린다)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가이드들은 이 지역의 생생과정, 생태계 및,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친구는 유머 감각까지 갖고 있어 우리들을 교육하고 즐겁게 해준다. 공원에 들어서니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어떤 동물들이 나타날까 들떠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질문한다. 어떤 동물을 제일 먼저 볼 것인가 물어보니 각자 아마도 자기가 가장 보고 싶은 동물 이름들을 대는 것 같다. 지프차가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갑자기 넓은 초원이 나오고 저 멀리 초원 가운데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무리의 얼룩말, wildebeest, impala, and gazelle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서 코끼리, 기린, 원숭이, 사자, 그리고 하마라고 말했던 우리 모두는 웃고 말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코끼리, 사자들은 이곳에선 보기 힘들고 운이 좋으면 기린과 하마는 볼 수 있을 거라 했다. 이 공원은 높은 산의 산자락에 있으면서 숲이 우거지고 약간 고산 지대라(해발 1500m 정도) 많은 종류의 원숭이가 살고 있고 최소 6-7종



의 원숭이가 무리를 만났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여러 호수들이 산재해있는데 한 호수에 많은 무리의 홍학이 호수 가장 자리에 모여서 부리를 물에 박고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 무슨 물거품처럼 보였다. 가이드에 의하면 salted water에 사는 algae를 먹는다고 하며 이 공원의 몇 호수는 salted water라 한다. 휴식터에서 싸 온 런치 박스를 먹고 있던 중 몇 마리의 원숭이가 음식을 훔쳐 가려고 이리저리 주위를 배회하니 휴식터 관리인이 고무총으로 이들을 위협해서 쫓았다. 식후 사파리는 계속되었는데 마침내 저 멀리 몇 마리의 기린을 발견하고는 모두 탄성을 질렀다. 한 두어 시간 더 공원을 유람했지만 더 이상의 동물들은 발견되지 않자 가이드가 앞으로 갈 Tarangire, Ngorongoro, 마지막 행선지인 Serengeti에 가면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동물들을 볼 거라고 우리 모두를 안심시키며 오늘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음날 호텔 check out 한 후 우리는 Tarangerie 국립 공원을 향해 서너 시간을 갔다. 이곳은 비교적 넓은 초원과 여러 개의 시냇물이 산재해 있어서 많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공원의 거의 중심부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Tarangerie Safari Lodge로 숙소 주위로 펼쳐진 광대한 파노라믹 뷰가 장관이다. 숙소의 위치상 여러 제약점과 불편함이 따랐다. WiFi service가 제한적이고 전기도 제한된 시간에만 들어오고 투숙객에게 동물들이 항상 숙소 주위에 출몰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위험 고지를 받았다. 다행히 predators는 사람을 무척 경계하고 싫어해서 좀처럼 주위에 얼씬도 안 하지만 반대로 초식 동물들이 더 많이 꼬였다. 특히 원숭이들과 각종 조류가 조금은 성가시게 출몰하였다.

숙소의 넓은 개방된 식당에서 멀리 펼쳐진 공원을 아래로 바라보며 점심을 하고 우리 일행은 오후의 사파리에 나섰다. 아프리카 사파리 세계에서 big five라고 지칭하는 코끼리, 물소, 사자, 코뿔소, 그리고 표범 중 코뿔소만 빼고 모두 만났다. 특히 코끼리는 이 공원에 흔해서 숙소에서 내려다봐도 여기저기 몇 마리의 코끼리 떼가 matriarch 뒤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atriarch는 무리 중 가장 현명한 암컷인데 코끼리 떼는 그의 인솔하에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사회 생활을 한다. 이들은 가족애가 돈독하고 어린 것들을 보살피고 보호한다. 드물지 않게 외로이 홀로된 코끼리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어김없이 성숙한 숫 코끼리이다. 한참을 가는데 가이드가 시냇가를 바라 하여 봤더니 암 사자 한 마리가 옆으로 누워있고 그 옆에 방금 사냥한 듯한 wildebeest가 죽어서 넘어져 있었다. 10여 미터 뒤로 대 여섯 마리의 암사자가 여기저기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들은 그리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다. 가장 장관인 것은 주위 여러 그루의 큰 나무 위에 수십 마리의 vulture가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자가 시식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날 다시 우리는 다섯 대의 사파리 차에 분승하여 투어에 나섰다. 오늘 우리와 같이한 가족은 11살 먹은 손녀를 데리고 온 LA에서 온 노부부로 남자는 나와 나이가 엇비슷한 아직도 현업에서 신장 내과의로 일하고 있는데 dry sense of humor가 많았다. 이 부부는 나와 같이 사파리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망원경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나와 비슷하게 그들 손녀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 여행을 나서서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임무였다. 그동안 대니엘은 사파리 관련 책도 많이 읽고 YouTube 채널도 많이 봐서인지 아는 것이 많고 가이드의 코멘트도 잘 소화하면서 망원경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antelopes를 (다음면에)

2021-22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전경배 51대 회기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1950 나수섭
- 1958 박호현 김부근 김시한 김해암 류치열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최병두
- 1959 김병구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서경화 임낙중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택경 박춘명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 1961 고의걸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준환 안창현 양명교 이재승 이회백 장성환 최공창 최성덕
- 1962 김석식 남성희 박종건 송홍일 이기범 이상무 이영웅 이태봉 장항순
- 1963 강영호 김갑중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 1964 권정덕 김용두 라찬국 신두식 양운택 유광현 윤희기 이중오 전희택 정유석 조성준 차승만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 1965 권오연 김길중 김덕진 김옥현 손광호 이범석 이정희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홍수웅 황규정
- 1966 김용재 김의신 김충규 이명희 이영은 이인수 조관상 조의열 한동수 한일성
- 1967 김성철 김태웅 이민우 이영균
- 1968 김경인 김영덕 김재관 김정웅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안세현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중권 김창남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윤희윤 이용환 이충호 임안무 임용규 조중행 천양곡
- 1970 박홍식 송요준 오석일 조남현 홍 건
- 1971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재홍 김창구 김효순 노재홍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오동환 이원택 이종일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정진우 황용규
- 1973 김정용 나두섭 민인기 박진섭 위장호 이계석
- 1974 권철수
- 19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역 배영훈 전경배
- 1976 유영걸 최광휘
- 1980 박남훈
- 1984 서귀숙
- 2000 박은경
- 2008 박종한
- 1977 박일우
- 1982 차민영
- 1991 홍정연
- 2001 김민정
- 2012 최예원

38th CONVENTION DONATION

최종진(59) 100	권기홍(60) 500	이종석(60) 200	이재승(61) 2,000
김태웅(63) 1,000	허선행(64) 200	전희택(64) 100	차재철(60) 75
이원택(71) 75	김창구(71) 75	배성호(71) 100	김성환(71) 1,000
나두섭(73) 500	권철수(74) 200	김명호(75) 2,100	최광휘(76) 100
서귀숙(84) 100			

GREEN PROJECT FUND

이종석(60) 200	허선행(64) 100	차재철(68) 100	배성호(71) 175	김명호(75) 100
전경배(75) 10,000	박남훈(76) 200	서귀숙(84) 100	장세권(01) 500	

CHARITY FUND

이상복(62)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100	강창홍(71) 100
민인기(73) 200	김명호(75) 100			

SCHOLARSHIP FUND

이만택(58) 200	임필순(60) 200	이기범(62) 375	김태웅(63) 10,000	한광수(63) 300
허선행(64) 100	전희택(64) 100	이명희(66) 459,840	이영균(67) 200	김주평(68) 75
오석일(70) 15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200	서정자(71) 400	김명호(75) 100
김자역(75) 500	Mrs. 김공자(60, 고 김국민 부인) 2,000	Mrs. 이강옥(61) 30,000		

GENERAL DONATION

정태진(59) 75	최혜숙(59) 200	권기홍(60) 500	장성환(61) 100	고의걸(61) 50
김화섭(61) 100	이재승(61) 2,000	이상복(62) 125	추재욱(63) 50	윤영옥(63) 75
신경호(63) 75	송용덕(63) 175	노인규(63) 50	한광수(63) 175	허선행(64) 100
양운택(64) 100	전희택(64) 250	권정덕(64) 200	최준희(64) 200	김덕진(65) 100
정길화(65) 100	권오연(65) 50	이인수(66) 100	김성철(67) 75	차재철(68) 100
임공세(68) 125	이상훈(68) 175	김중권(69) 200	윤희윤(69) 100	이용환(69) 100
강창홍(71) 75	김창구(71) 100	오동환(71) 100	하준영(71) 75	오용호(72) 200
박진섭(73) 10,000	이계석(73) 100	권철수(74) 100	김명호(75) 100	배영훈(75) 175
김원정(75) 100	유영걸(76) 275	차민영(82) 1,000		

AASCDTF DONATION

김창구(71) 100	김명호(75) 100
-------------	-------------

동창회에 답지한 기금 보고

현재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에 작고하신 동문들의 부인들께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동창회에 기금을 보내오시고 계십니다.

김국민(60) 동문의 부인이신 김공자 여사께서 매년 \$10,000을씩 본인 생존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약속하시고 Green Project 활성화 기금으로 올해 첫 \$10,000을 5번에 나누어 받기 시작하여 \$2,000 두 번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 김국민 동문은 pathology 전문의였고, 김 여사는 MD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철희(61) 동문의 부인이신 이강옥 여사께서 \$30,000을 Green Project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하셨습니다. 고 이철희 동문은 마취과 전문의로 CA에 거주하셨었고, 현재 이강옥 여사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상일(60) 동문이 Green Project 활성화 기금으로 \$10,000을 기부하신 소식이 지난 7월호 donation란에 올랐습니다. 이상일 동문은 emergency medicine 전문의로 MI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전면에서 계속) 식별하며 못 보던 동물을 보면 가이드에게 즉시 물어 보곤 했다. 마침 시냇가에 한 30여 마리의 코끼리가 어울리며 어떤 놈들은 풀과 작은 나뭇가지를 먹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어린 코끼리 두 마리가 한가로이 장난 치면서 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놈이 어른 앞에서 머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커서 무게가 10톤 이상 되는 놈도 있다. 또 한 무리의 물소를 만났는데 수놈은 큰 뿔을 머리에 얹고 몸무게가 1톤 가까이 되고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하다. 힘센 놈이 자기 무리들을 보호하고 사자가 이 무서운 물소를 사냥하지만 사자도 목숨을 내걸고 여러 마리가 함께 공격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뜨릴 수가 없다. 여기저기 얼룩말과 wildebeest 떼를 만났는데 이들은 같이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한다.

오늘 저녁은 식후 식당 앞 널찍한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marshmallow를 구워 먹으며 내일은 Ngorongoro 보호구역에 가면서 Masai 족의 생활터를 견학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마사이 족의 전통 의상인 붉은 체크 무늬의 천을 나누어 받아 이것을 미리 입어 보는 연습도 했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여 광대하게 펼쳐진 들판이 온통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금방 사방이 어둠으로 변하면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별들이 박혀서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날 우리는 Ngorongoro 보호구역을 향해 일찍 떠났다.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이곳에 오래전부터 정착하여 유목생활을 하는 마사이 족을 전부 공원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공원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이곳

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우선 우리는 보호구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사이 족의 촌락을 방문하여 그들의 촌락 형성과 주거형태를 관찰하고 그들의 유명한 jumping performance를 관람했다. 100여 명이 주민이 젊은 촌장의 지도하에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유목을 하면서 사는데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며 어울려 산다. 집단으로 수제 품들을 만들어 관광객한테 팔아 부수입을 얻는 것 같았다. 마사이 촌을 떠나 도중의 한 멋진 호텔에서 점심을 한 후 한참을 더 달려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를 목을 분화구(Ngorongoro crater) 밖에 위치한 호젓한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섯 대의 사파리 전용차에 분승하여 Ngorongoro 분화구를 향해 출발하였다. 분화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40여 분 안갯속을 뚫고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올라가 정상에 도착하니 마침 안개가 걷히고 산 아래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산으로 빙빙 둘러쳐져 있지만 하도 넓어 끝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고지에서는 아래의 넓은 평원이 아득하게 보여 망원경으로도 동물 관찰이 어렵다. 대강 분화구의 지름이 약 20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실제로는 caldera)이다. 분화구는 뿔 돌아가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분화구 안은 넓은 초원과 큰 호수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지형 관계로 이 안의 동식물들은 제한적

으로 이 지역 안에서만 주로 생활해오면서 특유한 생태계를 오랜 세월 유지해왔다.

다시 한참을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달려 내려와서 분화구 안으로 들어오니 비로소 동물들이 무리 지어 뛰어다니 동물들의 낙원처럼 보인다. 여기저기 얼룩말과 wildebeests들이 같이 섞여 풀을 뜯고 있다. 호수와 연못 수로들이 흩어져 있어 하마들이 물속과 물 주위에 서성거리고 물소들이 흔하게 보인다. Salted 연못들이 있는 탓으로 홍학들이 군집하고 들판에는 타조들이 하늘엔 독수리, vultures뿐 아니고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로이 마음껏 날아다닌다. 여러 무리의 원숭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고 나무들이 비교적 많은 한 모퉁이에 사자 몇 마리가 풀 밭에 누워 주위를 무시하는 듯이 쉬고 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에 표범 한 마리가 한가로이 가로누워서 자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영화나 YouTube 비디오에서 흔히 보아 왔던 사자나 표범의 사냥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행운을 누릴 찬스는 극히 희박하다. 우선 이런 predators는 대개 야행성으로 사냥도 밤에 하고 낮에 하더라도 잠을 성과 시간이 없는 여행객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루 종일 분화구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늦은 오후에 숙소로 돌아오려고 아침에 왔던 길로 산 길을 올라가는 중에 하이에나 한 마리를 만났다. 어디를 그리 혼자서 바빠 가는지 길 옆에 나타났다가 급히 사라져 버렸다.

내일은 비로소 모든 아프리카 사파리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모든 사파리 여행객의 염원인 Serengeti 국립공원으로 우리의 여행 종착지이며 앞으로 3박을 할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Ngoron-

goro 분화구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차로는 5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므로 우리는 12인승 쌍발기로 이동하였다. 조그만 비행장은 여행객들로 붐비었다. 대니엘 덕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탑승하여 조종사 바로 뒤 편에 앉아서 그들 두 조종사의 일투족 일거수일발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활주로는 포장도 안되어 붉은 흙으로 다져져 있었고 비행기는 굉음을 내고 흙먼지를 날리며 곧 이륙하여 아프리카의 촌락과 밭들, 초원과 작은 물길과 호수들을 발아래 깔고 한 40분 남짓 비행 후 세팅게티 국립공원 입구의 조그만 비행장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원래 Serengeti라는 뜻은 끝없는 초원이란 뜻으로 그 넓이가 대략 사방 150km로 대부분이 탄자니아에 속해있고 북쪽 일부가 케냐에 속해있어 과거 한때 서로 티격태격하며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화롭게 이웃끼리 잘 지내고 있다. 공원은 풍부한 강우량과 따뜻한 기후 덕분에 초원이 잘 조성되었고 드문드문 나무들이 서있지만 숲은 없고 야간의 구름이 있어 단조로움을 조금은 달래지만 초원의 지평선은 차를 한참 달려도 먼지는 나지 않는다.

탄자니아는 적도 가까이 있는 관계로 해 뜨는 시간은 항상 아침 6시 해지는 시간은 저녁 6시라 북반구에서 날아간 긴 6월의 낮 시간에 익숙한 우리에게 신기하게 다가왔고 기후도 적도 근처라 무척 더우리라는 예상을 깨고 아침저녁은 서늘하여 얇은 스웨터가 제격이고 한낮이 되어도 아주 덥다는 생각은 안 든다. 그러나 한낮의 태양은 따가와 sun block lotion은 필수품이다. 더구나 5월부터는 건기가 되어 공기는 무척 싱그럽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